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3호
2022년 1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범 내려 온다' ... 호랑이 해 맞아 이날치 밴드 미주공연



모교 국악과 출신 5명이 주축이 된 한국의 7인조 퓨전 밴드 '이날치 밴드'가 4월 2일(토) LA에서 공연을 갖는다. '서울대인의 날' 행사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서울대학교와 미주동창회, 남가주 동창회가 이날치 밴드를 LA로 초청해 성사됐다. 이날 오세정 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날치 밴드 제공.

미주동창회장 신년사

종신이사·회원가입 등 크게 늘어 감사할 따름 한인사회의 의미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터



노명호(공대 61)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역시 COVID-19 공포 속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달 내

한흥택 박사 100만 달러
서울대학 발전기금 기부
관련기사=2면

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정상화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주동문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미주동문님들 건강하시고 2021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포함해 많은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16대 미주동창회장 임기가 지난해 7월 1일에 시작돼 이제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며 동문 선배님들의 동창회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또 16대 미주동창회 임원들의 헌신과 지부장님들의 열성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많은 동문들이 후원

금, 종신이사비, 또는 회보 광고로 미주동창회를 후원해 주셔서 동문들의 기부 문화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미주동창회가 한인사회의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또 동문들이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동창회 사업을 구상해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6.25 참전 미군전사자 기념비 사업과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학술대회(UKC 2021) 등에 참여하고 후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미주동창회의 뜻있는 첫 사업으로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 10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해(한명당 \$10,000, 총 \$100,000 예산) 6월 평의원 회의에 선발된 학생들을 초청해서 장학금을 지

급할 계획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미주동창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적립해온 Century Foundation / Alma Mater Fund의 투자/관리 방향도 정해야하고, 또 젊은 동창회를 육성하기위한 노력과 투자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31차 평의원회의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남가주에서 열립니다. 서울대 미주 동문님들, 오는 6월 남가주에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진행될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많이 참가해주시기 기대합니다.

미주동문 여러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는 2022년 임인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입니다.

UCLA 석좌교수 한홍택 박사 모교에 100만 달러 기부 ‘한백 장학기금’ 설립 “더 많은 용이 개천에서 나오도록 돕겠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반가운 일은 아니지요. 오히려 앞으로는 ‘더 많은 용이 개천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형편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어 같은 출발선에서 사회생활에 뛰어 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용이 개천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홍택 박사(공대 기계공학 60) -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Penn State University 교수, UCLA 교수 등의 교수직, 공군재료 국립연구소, 공군 과학연구소, IBM 등의 연구직, 그리고 한국 과학의 요람 KIST 원장, 서울대 월드클래스 교수, 스웨덴의 방문교수 등 평생을 다양한 지역에서

기계, 재료공학 부문에 업적을 쌓은 학자다.

1999년에는 복합기계, 재료의 설계 및 성형제작 부문의 공로로 삼성의 호암상(공학부문)을 받았다.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은퇴생활을 개척하고 있는 한홍택 교수와 부인 백훈(미대 응용미술 61)여사는 지난해 12월 모교 서울대학에 ‘한백 장학기금’을 설립, 100만 달러 기부를 약정하고 1차로 10만 달러를 출연했다. 개천에서 많은 용을 내보내기 위해 뛰어든 것이다. 그 자신도 개천 바닥에서 오른 용이기 때문이다. 한백 장학기금을 통해 매년 공대와 기계공학부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해 4년간 전체 장학금을 주게 된다.

1960년대 한국은 나라 전체가 넉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학생 한홍택은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빌려 봤다. 시험 때에는 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었다. 가난했지만 즐거운 학창시절이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며, 그 당시 처음 지어진 기숙사 생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3, 4학년 때는 미 8군 사령부의 장학금으로 대학생활이 좀더 풍요로울 수 있었다. 이택식 교수님을 존경했고 공업역학 성적이 뛰어나 이 과목을 가르치신 이해 교수님과 친하게 지냈다. 한홍택이 ROTC로 복무할 때 이해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가셨고, 한홍택 교수는 제대 후 이해 교수님이 계신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이다.

“그 시절엔 모든 분이 그러셨겠지만, 1966년에 저도 100달러 정도 들고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Penn State가 있는 State College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도착했죠. 돈이 아슬아슬했죠.”

약혼한지 1년 후 아내(백훈)가 같은 캠퍼스로 유학을 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게 됐다. 백훈 여사는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학과 출신이다. 미국서 결혼식을 올린 뒤 백 여사는 ‘풀타임 맘’으로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다. 1971년 박사학위 후 캐나다 해밀턴의 McMaster University에서 포스트닥을 하게 됐고, 1년 후 오하이오의 데이턴에서 공군 재료실험실 내의 국립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부임해 이곳에서 셋째 딸까지 낳게 됐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를 거쳐,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 부교수로 부임하게 됐다. 이때 나이가 들어보여야 승진이 빠

달랑 100 달러 들고 유학길 삼성의 ‘호암상’ 수상 ‘영예’



한홍택 박사와 부인 백훈 여사는 서울대 동문이다. 미대 응용미술학과 출신인 백 여사는 한 박사와의 슬하에 딸 셋을 두고 있다.



한홍택 박사가 UCLA 공대 학생들과 줌을 통해 강의하고 있다. 한 박사는 UCLA 석좌교수다.

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을 기르기 시작했다. 세인트 루이스의 조용한 미드웨스트 생활을 즐기며 딸들도 잘 크고 있을 때 다시 미국 모교인 펜 스테이트에서 교수직 요청이 왔다.

“제 아내는 그곳이 학생시절 가난하

게 살던 곳이라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딸 핑계를 대며 설득을 해 결국 또 이삿짐을 싸게 됐죠. 그러나 그곳에서 살면서 아내는 캘리포니아 삶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UCLA에서 교수를 찾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지만 딸들의 반대 여론에 성사가 되지 못하다가 3년 후인 1992년 결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한홍택 교수가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7년의 갑갑증’대로 7년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거쳐, 워싱턴 DC 인근의 공군 과학연구소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옮기게 되고, 이곳에서 또 7년을 지낸 후 한국에 나가 KIST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을 너무 몰라 준비가 안됐고 한국만의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 적응이 어려웠죠.”

서울대학교 교수 생활 후에 2013년 미국으로 돌아왔고 2020년에는 완전한 은퇴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틈틈이 시도했던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기업, 그의 맘에 맞게 운영되는 기업 투자에 나섰다. 결과는 투자 기업의 기하급수적 성장이었다. 그의 모교 기부의 씨앗돈이 됐다.

“저는 모교 서울대가 저에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홍택 교수는 이제 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다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를 통해 모교와 동문,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나섰다.

그가 동문들과 모교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제 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씨를 뿌리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일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직장, 지역,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바꾸어 인용합니다. Ask not what others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them.”

취재=김인종(농대 74)

미주동창회 장학금 프로젝트 확정 1만달러씩 모두 10명까지 지급 전 미주 한인사회에 개방 ... 3월31일 신청마감

미주동창회 장학금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전체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수혜대상을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1만 달러로 미주한인사회 장학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한홍택 박사(공대 60)의 사회로 열린 이날 줌 모임에는 노명호(공대 61) 미주동창회 회장을 비롯해 강호석(상대), 황경승(공대), 남성우(공대) 등 장학위원들이 참석했다.

당초 미주동창회는 5만 달러를 장학사업에 배정했으나 한 박사가 사재 5만 달러를 쾌척, 예산이 10만 달러로 증가해 수혜자가 두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장학금(National SNUAA Undergraduate Scholarship)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수혜대상을 서울대 출신이나 동문 자녀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한인커뮤니티에 오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박사는 “장학금 개방을 계기로 서울대가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해 11월 재향군인의 날(베터런스 데이)을 맞아 LA인근 플러튼의 한국전 미군전사자 기념비 건립에도 5,000 달러를 기부해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장학금은 *4년제 대학 등록 학생 * 미국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은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에세이(800 단어) 등은 별도로 업로드해 보내면 된다.

장학위원회는 주요 한인 언론매체에도 공고를 내 장학사업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snuaa.org > services > scholarship program 을 누르면 신청서 양식이 나온다.

문의: scholarship@snuaa.org

남가주 공대 동창회 신년 총회 회장에 남종우 유임 · 부회장 배재현 동문



지난 1월 8일 작가의 집에서 열린 남가주 공대 동창회 총회. 팬데믹인데도 60여명이나 참가해 동문들의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회장 남종우 · 전기 62) 총회 및 신년회가 지난 1월 8일 LA 한인타운의 작가의 집(대표 김병연 · 응수 69)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팬데믹 상황인데도 6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공대 학가와 서울대 교가 제창 및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동문에 대한 추모의 묵념으로 시작한 총회는 2021년 사업보고와 재무보고를 각각 승인했다.

이어 지난 한 해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종우 회장은 한귀희(건축 68 ·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최용준(수의대 81 ·

남가주 총동창회장), 한홍택(기계 60), 위종민(자원 64), 서치원(공교 전자 69)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새 회장 선출. 총회는 남종우 회장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부회장에 배재현(전기 75), 총무 차기민(제어 85), 간사 위종민(자원 64) 동문이 새 임원으로 뽑혔다.

2부 순서에서는 서치원 동문의 재치있는 사회와 함께 노래 자랑,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는 등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취재=배재현(공대 75)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신년사 “젊은 동문들의 참여 절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맞아 우리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난 2년 간의 팬데믹으로 인해 동문간의 교류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올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어서 가을에는 모교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바라는 바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시고 더욱 뜻깊은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명호 회장님을 모시고 지역 동창회를 방문할 기회를 기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새해를 맞아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올해에는 참신하게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창회의 여러 목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반구십리’란말이 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이 구십리에 도달해도 겨우 반 정도 왔다고 여기는 말이

있으니 우리도 정해 놓은 목표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문들께서는 주위를 둘러 보아서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 동창회는 늙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젊은 동문

들을 참여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소그룹을 조직해 젊은 후배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해에는 우리 동창회에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강 (의대 70)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남가주 문리대 새 회장에 이경희(인문대 83) 변호사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새 회장에 이경희(인문대 83) 변호사가 선출됐다. 문리대 동창회장은 그동안 공석이어서

박제환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 회장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 동문이 새 회장으로 취임, 동창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이 신임 회장은 “앞으로 선후배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맡아 신바람 나는 동창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동문은 시카고의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을 졸업,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줄리 정 상원인준

줄리 정(한국명: 정지윤)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 지명인이 지난 12월 18일 상

원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돼 부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쳤다.

부친 정재훈 박사(공대 64)에 따르면 정대사는 다음달 중 스리랑카에 부임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12월호 14면에 실린 최고령 ‘전상욱’ 동문은 ‘전경자’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6면의 ‘김윤하’ 시카고 동

창회장도 ‘김유하’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재가동 되나 50년대 무상 교육원조, 의대·공대·농대에 첨단과학 전수 이번엔 ‘SNU in Minnesota’ … 두 대학간 문화 교류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60여 년만에 재가동됐다.

서울대 국제협력본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미네소타 대학교 문화교류를 두 달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두 대학 학생들은 1:1 매칭돼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했다. 교류는 팬데믹으로 인해 줌 미팅을 통해 이뤄졌다.

미네소타 대학은 한국전 직후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원조를 제공, 서울대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토대를 마련해 줬던 대학이다.

이번 두 대학간의 교류 프로젝트는 이전과는 달리 ‘SNU in Minnesota’로 명명됐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한 교류 사업은 서울대 학생들이 미네소타대 현지 강의를 듣고 3M 본사방문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 19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미네소타대 측에서 온라인 교류를 제의해와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었다.

지난 2학기 서울대-미네소타대 문화 교류에는 서울대 학생 60명과 중급한국어 수업을 수강 중인 미네소타대 학생 5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날씨/계절/패션, 여행, 한국의 주거생활, 대중교통/상가/식당 등 평소 궁금했던 것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두 대학간 교류는 올해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네소타 대학은 서울대는 물론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AID)의 한국교육원조 프로그램이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서울대의 젊은 교수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보내 의학, 농업, 공업 분야의 선진학문 및 기술을 전수받도록 한 것이다.

1955년부터 7년에 걸쳐 서울대 교수진 226명에게 초청연수의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의료분야는 간호학을 포함해 77명이 연수를 받았다.

단기 3개월부터 장기 4년 동안 교육과 숙식을 포함한 모든 연수비용은 미국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미네소타 대학 측도 이 기간 교수진을 서울대에 보내 의대, 농대, 공대의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원했다.



팔에서 피를 뽑는 법과 같은 간단한 처치에서부터 심장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법까지 배우고 돌아갔다.’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해 노벨의학상 후보로도 올랐던 이호왕 교수도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혜자 중 한 명이다.

연수가 한창이던 1959년 뉴욕대 부총장을 지낸 조지 스토타드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쓴 보고서는 지금도 학계에서 널리 회자되며 인용되고 있다.

“금속활자와 고려자기 등 여러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그랬듯이 머지 않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새로운 상품과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수십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 한국은 첨단기술 보유국이 됐으며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이다.

당시 미국은 세계 90여개 국을 원조하고 있었는데 선진교육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연수자 귀환율은 9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나라임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의료분야에서 이뤄졌다. 미네소타에서 의료기술을 배웠던 한국은 이제 의료강국이 됐다.

지난해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사는 1,000여 명. 한국이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위암, 간이식 등의 분야에선 이미 미국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네소타와 한국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6.25 전쟁 때는 거의 10만명에 이르는 이곳 출신 젊은이들이 한국에 파병됐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만 4,000명이 넘는 미네소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전 고아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기록에 따르면 3만명이 넘는 고아들이 미네소타에 입양됐다.

이같은 인연으로 미네소타 대학이 서울대 교육원조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6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와 미네소타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금석지감을 갖게 된다.

〈동창회보 취재팀〉

① 지난 2019년 ‘SNU in Minnesota’ 프로젝트에 따라 미네소타 대학을 방문한 서울대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② 1950년대 후반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모습. 맨 오른쪽이 의대 이영균 외과 교수다.

③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종료료를 알린 당시 신문보도. 총규모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교육원조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는 1955년 9월 15일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서 의대의 젊은 교수 12명이 노스웨스트 항공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으로 시작됐다. 영어가 서툴러

기내식을 주문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란에 폐허가 된 조국을 생각하며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학업에 매달렸다.

김효경(캐서린 함) 수피리어 코트 판사 청문회

“내 첫 법정 경험은 7학년 때 아빠 통역” 울먹 세탁소 운영 부모, 손님이 특하면 트집잡아 고발

매사추세츠주의 수피리어 코트(Superior Court · 1심 법원)에 처음으로 한인여성이 판사로 인준을 받아 커뮤니티의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인공은 캐서린 효경 함(한국명 김효경 · 44) 판사. 김규화 동문(상대 63) · 정혜영 부부의 2남 1녀 중 막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의 지명을 받은 함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주지사 위원회(Governor’s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12월 9 일자로 취임했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대부분의 주 수

피리어 코트 판사는 선출직이지만 매사추세츠는 8명으로 구성된 주지사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탄핵을 받지 않는 한 만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청문회에는 남편 함승원 변호사와 세 자녀가 참석, 인준과정을 지켜 봤다. 먼저 피지명자 측 증인으로 나선 이는 새론 도나텔리. 역시 수 피리어 코트 판사인 그는 과거 함 판사의 검사시절 수퍼바이저로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매우 열정적이고 지적이라고 함 판사 를 소개한 그는 늘 공정을 강조하는 그의 ‘직업윤리(work ethic)’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트 차림으로 발언에 나선 함 판사는 자신의 첫 법정경험을 소개했다.

“나는 7학년 때 처음으로 법정에서 켰다. 부모님의 통역으로.” 이 대목에선 목 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부모님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다. 일부 손님들이 세탁물이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아) 부모님을 소액재판에 넘 기곤 했다” 고 했다. “겨우 7학년 짜리가 법정에서 켜는 것이 참 어색했지만 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싸워야 했다” 고 울먹였다. 그 순간 청문회장은 숙연 해졌다.

부모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대목에선 목소리의 떨림 이 심하게 물어났다.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손님들이 부 당한 요구를 하면 당당히 맞서 싸우라 (fight back)고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말렸다고 했다. 아무도 우리말 에 귀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함 판사는 10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에 왔다. 처음엔 영어는 고사하고 알파 벵조차 몰랐다. 언어장벽과 문화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실로 엄청난 노력이 필 요했다.

“엄마와 아빠는 32년을 쉬지 않고 일 했다” 며 “무덤고 화학약품 냄새로 찌 든 좁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삼 남매를 키워내셨다” 고 말했다.

“부모님은 그러나 오늘 이 (영광스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 고 말한 함 판사 는 “104세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실재없이 수트를 세탁하고 다림질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우리 보

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라고 일렀다” 고 말했다.

“나는 부모님 소원대로 전문직 여성



원은 “내 아버지도 당신과 같은 나이인 10살 때 이탈리아에서 이민왔다. 영어 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당신처럼 변호사

한인최초로 매사추세츠주 수피리어 코트 판사로 인준된 캐서린 효경 함.

부모(김규화 · 정혜영)와 함께 법정에서 포즈를 취한 캐서린 효경 함 판사.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다.



이 돼 수트를 입고 법정출입을 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내가 부모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울먹였다.

함 판사는 메모 한 장 없이 깨끗히 일 어서서 자신의 가족과 이민생활의 역 경, 꿈, 그리고 소신을 격정적으로 토해 냈다.

질문에 나선 크리스토퍼 이아넬라 위

가 돼 꿈을 이뤘다”며 눈물을 그렁그 령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대부분 “당신은 훌륭한 판사가 될 거다” “당신이 정말 자 랑스럽다” “당신의 성취가 믿기지 않는 다” 며 지지를 밝혔다.

함 판사는 필라델피아의 헤이버포드 (Haverford) 대학과 뉴잉글랜드 로스

쿨(New England School of Law)을 나 왔다. 지난 2005년부터 플리머스 및 서 포크 카운티 검사로 근무하며 각종 강 력사건을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어 2019년에는 보스턴시법원 판사로 임 용되는 등 경력을 쌓았다.

함 판사는 본 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세대는 배고픔을 모르고 순탄하 게 지냈다”며 “이 모든 것이 부모님들 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기도 덕분이었 다” 고 부모의 헌신을 고마워했다.

“아빠가 졸업한 서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 도 서울대의 이미지에 걸맞게 살아가겠 다” 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불 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삶의 힘든 고비 마다 신앙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한 예로 배심원들이 인종차별 이 느껴지는 비합리적인 평결을 내렸을 때, 그에 따른 선고를 해야하는 안타까 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 하셔서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함 판사의 소망은 치우침이 없는, 공정 하고 정의로운 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 는 것이다. 법정에서 한인 동포나 소수 계를 만나더라도 이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 람들을 옹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부친 김규화 동문은 “자녀가 부모의 꿈을 이뤄주는 것 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다” 고 말했다. 어머니 정혜영 여사 역시 “제대로 뒷받침도 못해줬는데 스스로 잘해주 대견할 뿐” 이라고 소감을 전 했다.

청문회 동영상: https://youtu.be/5vzzx_TEN6k

취재=김정현(공대 68)

종신이사 오봉완 박사(법대 53) 제 1회 김복동 평화인권상 수상 ‘영예’ 조지타운대 교수시절 일본군 위안부 세미나 ‘파장’

오(조)봉완 박사가 최근 동창회보 편집실에 근황을 전해왔다. 지난해 말 한국서 ‘김복동 평화인권상’을 받았으며 유튜브 수상 소감과 상패 등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자신이 제 1회 수상자라는 소식과 함께였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니 오 박사는 ‘여전히’ 곱다. 80중반을 훌쩍 넘겼는데도.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랫말은 오 박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 박사는 30년 전 미국서 처음으로 일본군 성노예를 공론화해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김복동 인권상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김복동 할머니는 공장 취업의 달콤한 제의에 속아 넘어가 만 14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간 분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일본군의 침략경로를 따라 끌려 다니며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오 박사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폭로가 계기가 됐다. 충격을 받은 오 박사는 조지타운대학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 미키 다케오 전 일본총리의 미망인도 초청에 응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350명을 수용하는 강당에 교수 학생들이 빼곡히 메워 오 박사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조지타운대 행사가 기폭제가 돼 강연회가 미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내셔널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도 심포지움을 개최할 정도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급기야 미 법무부는 일본전범자 16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그 중 셋을 위안부 관련자로 적시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우리의 치욕스런 과거를 들춰내느냐면서요. 돌팔매질 당할 것도 각오했지요.”

오 박사는 조지타운대의 동료교수 마가렛 스테츠와 함께 ‘Legacies of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를 저술

이 다 잠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대학은 서울대 법대를 선택했다. 이흥구 전 총리 등이 오 박사의 입학 동기생이다. 캠퍼스는 서울이 아닌 피란지 부산이었다. 전쟁 직후여서 수업이 제대

요.” 그 모임이 오 박사에게 ‘오작교’가 됐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오기창 박사와 시선이 마주친 것이다. “딱 3초예요. 그 순간 반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역시 법대 동문으로 4살 위였다. 콜럼비아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남편이 조지타운대로 가게돼 함께 캠퍼스 커플이 되기로 했다. 그사이 2년1남을 둔 워킹맘이 됐다.

오기창 박사는 유엔공사를 거쳐 마켓 대학원장을 지냈다. 남편이 11년

전 타계하자 막내 아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의 교외도시 에반스톤으로 이주, 올해가 벌써 15년째다.

법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꾼 오 박사는 시와 수필을 쓰고 소설도 내놓았다. 명성황후 시해를 다룬 ‘Murder in the Palace’는 나중에 ‘궁내의 살인’이라는 타이틀로 한글판을 출간했다.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시카고 한인회를 비롯해 문인협회, 평통 등 활동범위도 넓다. 뭐니뭐니해도 서울대 행사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원로 모임인 골든클럽 멤버이기도 한 그는 얼마전 회비를 납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가 됐다.

이번 김복동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또다시 뛰어들 생각이다. 3년 전 93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을 결코 잊지 못한다. “끝까지 싸워줘. 나 대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꼭 해결해 줘.”

오 박사는 동문들이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서울대의 모토를 가리켰다.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 박사의 행보는 1956년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뒤 지금까지 쉽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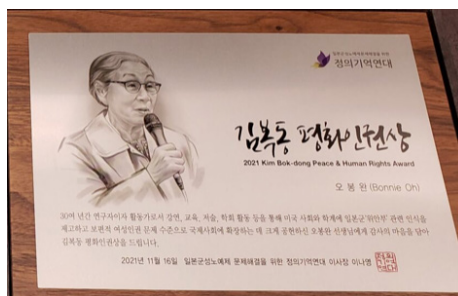
〈동창회보 취재팀〉

‘여자도 할 수 있다’ 부친 격려 뉴욕 유학생들 모임이 ‘오작교’ 동문 오기창 박사 만나 결혼



제 1회 김복동 평화인권상(가운데)을 수상한 오봉완 박사. 1991년 처음으로 조지타운 대학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른쪽은 위안부의 참상에 대해 증언하는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



했다. “가난한 성노예들이 겪은 참상을 세상에 알려 그 분들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 같은 담대한 용기가 나왔을까. 어쩌면 오 박사의 이름 ‘봉완’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전혀 여성스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봉’은 봉황새를 뜻한다. 봉황은 재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새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네가 여자라고 못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오 박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아버지는 인형이나 장난감보다 ‘플루타크 영웅전’과 같은 위인들의 전기를 사줬다. 그때 나이 7~10세 때였다. 오 박사가 훗날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그때부터였을 것 같다.

“내가 (7남매 중) 맏이어서 동생들보다 보살피줘야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

로 진행될 리 만무였을 터. 더우기 남학생들은 산 속 절간에 들어가 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공부에 회의가 생겼다. 마침 대한민국 최초의 여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그를 뒤흔들어냈다. 그분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일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대학교수로 꿈이 바뀌었다. 무턱대고 미국대학에 편지를 썼다. 다행히 명문 여대 세곳서 전액 장학금 제의가 왔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냈다. “처음엔 기가 막혀 하시다가 나중에 참으로 기뻐하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선택지는 콜럼비아 대학의 여자대학인 버나드 칼리지. 1950년대만 해도 아이비리그 대학은 남녀공학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자대학은 따로 있었던 것.

뉴욕엔 한국 유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모임에서 여학생은 나 혼자 있어



KSEA 창립 50주년 학술대회엔 팬데믹 상황인데도 한국을 포함, 미 전국에서 거의 900명이 등록, 성황을 이뤘다.

창립 50 주년 KSEA 연례학술대회 ‘성료’ “우리는 ‘한강의 기적’ 일군 주역, 이제 창업으로”

“69 to 7,148”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과기협)의 발자취를 숫자로 압축한 것이다.
과기협은 1971년 12월 11일 워싱턴 D.C.에서 발족됐다. 당시 참석자는 69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은 활동회원만도 7,148명이다. 무려 10배가 넘는 성장을 한 셈이다. 활동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한 회원을 가리킨다. 단 순 등록 회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

과기협은 지부 70여 개와 전문분과단체 31개로 구성돼 있다. 청년과학기술지도자학술대회(YGTLC)를 개최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젊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KSEA가 지난해 12월 1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LA 인근 하이얏 호텔에서 연례학술대회(UKC)를 개최했다. 팬데믹 시국인데도 모두 825명이나 등록해 주최측을 놀라게 했다.

주제는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 행사 테마에 맞게 공중보건 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코비드-19 관련 정책과 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비드-19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구스비 교수(UC 샌프란시스코)는 감염증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국제공조를 제의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첫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안드레아 게즈 UCLA 교수. 지난 2020년 블랙홀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그는

기조강연 뒤 따로 고교생들을 만났다. “실패를 즐기고 완벽주의 습성을 버리라”고 조언한 게즈 교수는 “모든 도전을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 동료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다는 점을 늘 기억하라”고 역설, 청소년들에게 감명을 줬다.

역시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선 고종성(화학교육과 76) 박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회원들과 공유했

LG화학에 입사해 신약개발을 주도한 그는 칼텍(CalTech)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강단 대신 창업의 길로 들어서 성공한 입지전적인 동문이다. 고 박사가 개발한 폐암치료제 ‘레이저티입’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기술이전, 12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이끌어냈다.

행사 첫날엔 대학지도자 포럼도 열렸다. 토머스 로젠바움 칼텍 총장, 진 블러

립이다. 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서 박사는 “KSEA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단체”라며 “향후 세워질 세종혁신센터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기술강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 이

‘실패를 즐겨라’ 노벨수상자 조언에 ‘감동’ 서문원 박사에 ‘세종혁신센터’ 건립 맡겨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임원진. 왼쪽부터 서문원 박사, 안혜정 박사, 김기영 차기 회장, 박병규 회장.

다. “성공을 위해서는 화학, 생물학, 의학, 심지어 경영 회계 쪽과도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고 박사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바이오 벤처기업 ‘제노스코’ 대표다. 1990년대

UCLA 총장, 캐럴 포트 USC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

대 총장 등이 참석, 팬데믹 환경에서의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글로벌 대학들과의 공조를 논의했다.

학술대회엔 서울대 동문들이 대거 참가해 행사를 빛냈다. KSEA 회장을 지낸 한홍택 박사(공대 60, UCLA 석좌교수)를 비롯, 김재훈 박사(공대 72), 이번 대회를 후원한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노명호 회장(공대 61) 등이 참석, 주최측을 격려했다. 한국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공대 82) 동문이 축사를 했다.

과기협 회장을 지낸 서문원 박사(공대 56, 노스캐롤라이나대 석좌교수)는 재임시절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과기협 본부건물을 구입하는 등 KSEA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어서 행사기간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서 박사는 80 중반을 넘겼는데도 또 다시 ‘부름’을 받았다. 이번엔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이다. 그에게 맡겨진 미션은 ‘세종과학기술혁신센터’ 건



밀젠코 마티예비치

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는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절대 늙지 않는다”며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병규 KSEA회장은 “한국에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또 미국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세종혁신센터가 이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갈라 디너에는 한국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밴드 스틸하트(SteelHeart)의 리드 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가 출연, ‘She’s Gone’ 등 자신의 히트곡을 불러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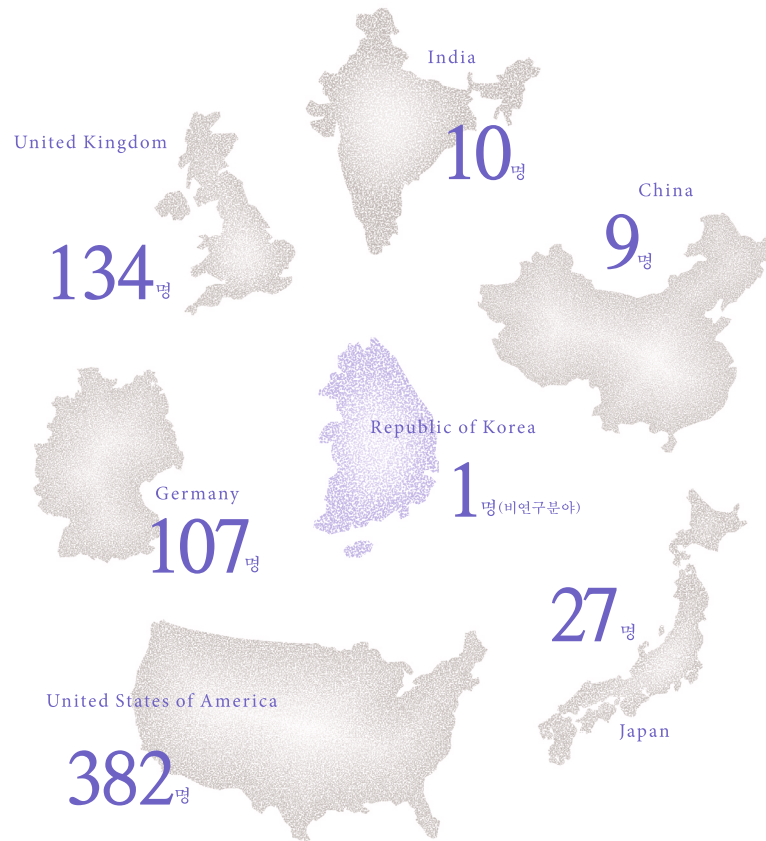
취재=안혜정(생과대 77)



미 래 가 연
래 치 구
가 가 를
깃 깃 위

든 든 한 기 부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든든한 기부' 모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가별 노벨상 수상 횟수

출처: 노벨상 위원회, 2020

노벨상 수상이 나라의 지상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와 과학발전의 상징으로
인류사에 탁월한 업적을 수행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서울대학교 든든한기부(연구지원)가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AI for All) 기금

창의융합형
실험실습기반 기금

첨단연구장비
인프라구축 기금



대한민국의 연구비는 80%가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
연구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
니다. 서울대학교에는 탁월한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기반조성기금 및 연구기금

창의신도신진연구자
기금

SNU 10-10 프로젝트 사업
기금

신임교수연구정착비
기금



한국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서울대
연구자들의 꿈의 사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서울대 동문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
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YouTube



동영상 바로가기

든든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DDH22-01]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일금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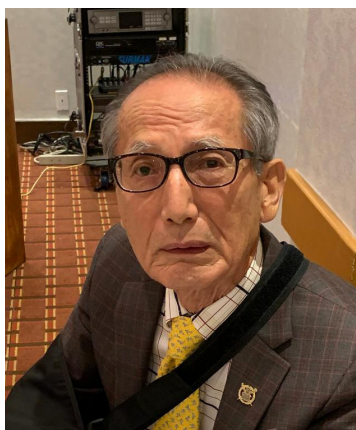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2015년 가을 동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맘모스 산 정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백정현, 송순선(Mrs. 송정우), 양수진, 유혜연, 김홍묵, 서치원, 차재윤, 김상찬, 송정우.

김상찬 동문 ... 나는 15년 차 MTB '철벽지' 80을 향해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여전히 산행



김상찬
(문리대 65)

“아니, 웬일이세요?”

지난해 7월 초 한국에서 오세정 총장이 LA를 방문했을 때 얘기다. 오찬 모임에 참석한 김상찬(문리대 65) 동문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맨 오른쪽 테이블 구석에 몸을 숨기다시피 앉았다. 그래도 부러진 팔을 고정시키는 슬링을 목에 걸었으니 부상이 노출될 수밖에.

김 동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동문들이 한마디씩 했다. “큰 일 날뻔 하셨네요.”

“그래도 용케 무사귀환 하셨네.”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소환한 동문도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쫓쫓.” 나이를 알라는 의미일 터. 80을 향해 페달을 밟고 있는데 주제파악을 못하고...

김 동문은 산악자전거 경력 15년 짜의 ‘철벽지’다. 부부가 함께, 그것도 60이 넘어서 배웠다. 동네 뒷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 쇠굴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탈골된 것을 바로 잡고 판을 맨 다음 스크루를 양쪽에 5개씩 10개를 박아서 고정시켰다.

김 동문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잠시 깜빡해 넘어졌다고 했다. 역시 소크라테스는 허투루 넘길 말이 하나도 없으며 웃었다. 삶의 어느 대목에서든 교훈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얼마전 김 동문을 만났다. 중상을 입었

으니 다시는 산악자전거를 안 탈 것으로 지레 짐작했다. “이제 MTB는 졸업하셨지요?” 철벽지들 사이에선 마운틴 바이크를 MTB라 줄여서 부른다. “천만에. 지난 주말에도 집 사람이랑 뒷산에 가서 신나게 타고 왔어요.”

슬쩍 언제쯤 졸업할거냐고 물었다. “지금 체력으로 봐서 80 중반까지는 충분할 거 같네요.”

김 동문은 바이크를 타면서 터득한 교훈이 있다고 했다. “아주 쉬운 산이라도 알보지 마라.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자만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까. 김 동문은 겸손하지 못해 부상을 입었다며 자기 탓을 했다.

왜 그리 힘들고 위험한 산을 타느냐고 물었다. “신은 인간에게 자전거를 선물했고, 인간은 자전거에게 산길을 선물했다지요?”

김 동문 부부가 처음 자전거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백정현(음대 66) 동문의 권유 때문이었다. 부부가 함께 탈 수 있는 ‘탠덤(tandem)’ 바이크를 권했다. 백 동문은 바이크에 관한 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LA에서 뉴욕까지 대륙횡단을 했으니...

김 동문에 따르면 ‘탠덤’은 그러나 부부애를 키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편했다.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져서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MTB를 구입해 산을 타게 됐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김 동문은 무엇보다 질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능이 좋지 않으면 오르막, 내리막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위험할 수도 있다.

“초보자라면 중고라도 괜찮아요. 가격대는 1,000~3,000 달러 사이면 되요. 경력이 붙으면 새 바이크로 바꿔 타세요. 제 거는 4,000 달러짜리인데 비싼 거는 1만 달러도 넘습니다.”

문외한에게는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야 돼 체력소모가 엄청날 것 같아서다.

“업힐, 곧 올라갈 때는 기어를 낮추어 주고, 몸은 자전거 맨 앞에 바짝 붙이고, 상체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여요. 호흡과 페달질을 함께 ‘싱크로나이즈’해서 울동

동문들에게서 산악 자전거 타기 배워 정상 오르면 아드레날린 솟아 ‘희열’ ‘산은 자만하는 자를 용서안해’ 교훈



주말이면 아내(김기환)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 바이크를 즐긴다.

적으로 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힘든 순간을 지나면 아드레날린이 솟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려요. 이 맛에 바이크 탑니다.”

스포츠는 종목만 다를 뿐 다 비슷한 모양이다. 마라톤에서도 ‘세컨드 윈드(second wind)’라는 게 있지 않은가. 장거리 선수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김 동문은 회보에 실어달라며 사진 세 장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 중 하나는

옷통을 벗어 제끼체 환호하는 모습이다. 5년 전 험한 산길을 두 달에 걸쳐 매주 도전했는데 7번 실패하고 8번째 비로소 정복에 성공, 흥분한 나머지 옷을 벗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노출이 심해 자체 검열에 걸렸다)

“산 정상에 오르면 고통을 다 잊어요. 헤로인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을 투여했을 때의 의식상태가 꼭 이 기분일 것 같아요.”

김 동문은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매주 산에 오른다.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다. 겨울엔 스키장(김 동문은 스노 보드를 탄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다. “체중조절을 원하시는 분들께 MTB가 ‘딱’입니다.”

남가주엔 ‘철벽지회’(회장 박찬민, 공대 81)가 조직돼 있어 주말이면 산에 오른다. 김 동문은 기초를 ‘철벽지’ 회원들로부터 배웠다. 송정우(문리대 79) 동문은 모임에서 ‘대사부’로 불린다. 거의 프로급이다. 최광휘(의대 70), 김자성(의대 76) 동문도 송 동문 못지 않은 베테랑이다. MTB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혜연(음대 79), 양수진(간호대 80), 이상실(간호대 86) 동문들도 고수급에 속한다.

김 동문은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동창회장 얘기를 꼭 써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괴력의 사나이’라는 것이다.

“한 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운트 볼디(LA에서 가장 힘든 등산 코스)에 올랐다가 잠깐 낮잠을 잔 뒤 오후 3시 철벽지 모임에 합류했어요. 3시간 넘게 땀에도 지치지 않아요. 다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해엔 많은 분들이 철벽지회에 가입했으면 하는 게 김 동문의 바람이다. 그러면서 명언을 하나 들려줬다.

“A bad day on a mountain bike always beats a good day in the office.” 김 동문의 얘기를 듣다보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호랑이 띠의 새해 소망

지성인들이 깨어나 제 몫을 했으면



최용완
(LA, 공대 57)

호랑이 띠는 어려서 제 2차 세계대전 종말과 대한민국의 자유해방,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목격하며 자라난 세대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오늘의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도약한 주축이 돼 청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태웠다.

이제 80대 나이들어서는 코로나와의 세균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에 감염돼 죽음을 앞둔 친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주고받는 대화중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은 다음의 다섯 가지 행동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이야기였다.

첫째, 다시 숨을 쉬며 음식을 찾아먹기에 살아났다. 물과 바람이 있는 곳에 음식이 있고 목숨이 살고 있다. 동물은 살아있는 다른 목숨을 먹고 살기에 싸움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이다. 가장 큰 싸움은 세균과의 전쟁이다. 모든 목숨들이 사라져도 세균은 살아있기에 이 땅 위에 세균은 목숨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했다.

둘째, 사람들은 먹고 잠자는 보금자리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들판에 나무 가지들을 세우고 나뭇잎이나 짐승 가축을 덮어 집을 지어 살았다.

한반도에서 농사짓기 시작하며 지은 집은 몽골의 동

그란 천막집 모양으로 남아있다.

셋째, 자신의 목숨을 잘 관리함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을 남겨야하는 순리에서다. 그 연결이 실패하면 이 세상에서 종자가 사라진다. 모든 목숨은 종자를 남길 조건으로 태어난다.

넷째, 암컷은 항상 생명력이 가장 강한 수컷의 씨앗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선별의 과정을 거쳐서 엄마의 몸 안에서 자라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목숨의 모든 것 그것은 사랑이다.

다섯째,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나뉘어져 있다. 남자는 경쟁에 앞서서 승자가 되려고 노력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여자는 사랑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삶 속에 평화와 평등을 이끌어간다. 삶 속에 경쟁과 사랑이 있어 지구상에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한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을 되찾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삶 속에 두려움과 아픔마저 사라졌다고 한다. 친구가 살아난 것이 내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였다.

2022년 호랑이가 돌아온다. 새해에는 북한동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호랑이 으르렁 외침에 지성인들이 깨어나서 인류의 미래에 제몫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길송
(시애틀, 상대 57)

이빨빠진 호랑이여, 다시 일어나시라

범띠들은 호랑이와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다.

상대 57학번 호랑이 동기들은 30대에는 한국의 재계 정부 금융계 대기업들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한 세대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데는 우리들의 희생의 덕분이라 자부하며 지낸다.

어쨌거나 이젠 이빨빠진 호랑이들이다. 2022년 임인

년 새해 아침에 시애틀의 한 문인이 다음과 같은 짤막하고 재미있는 수필을 썼다.

호랑이 해에 호랑이띠들에게 주는공로패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띠들에게 지난 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공로패를 수여하니 기죽지 말고 계속 용맹스럽고 너그러운 호랑이의 모습을 잃지마시라”

평생 나라와 인류를, 가족을 위해 수고한 호랑이 띠들이여, 이 공로패를 받고 다시 일어나시라.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

새해가 되어 호랑이 해가 되니 환갑후에 새로 맞는 호랑이 띠를 다시 생각하게되고, 과연 내가 호랑이 띠를 타고 나서 그 동물의 상징과 어느 정도 맞게 살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나는 1950년 생, 6.25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비극을 겪은 해이니 호랑이 운을 타고 났다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그래도 어린 시절을 난리후에 겪어 내 뒷 세대보다 참혹한 시련만은 피했다.

호랑이 띠의 힘을 얻은 것은 아마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서울대에 다니며 어깨를 펴고, 군에서는 포병 장교가 돼 최전방에서 호랑이처럼 웅켜 앉아 적진의 동향을 살피며 병사들을 관리했다.

나는 금강산과 동해 바다를 굽어보는 건봉산에서 호랑이처럼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나를 눈여겨 본 교수님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동의 해 예술 문화 워크숍에 추천해 주셨고, 장학금을 받으며 뉴욕에서 8개월, 서베를린에서 4개월을 지냈다. 이 기간 나는 한국음악의 위대함과 세계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원
(뉴욕, 음대 69)

호랑이는 외로운 동물이다. 소나 원숭이 등 다 둘러봐도 호랑이 만큼 외로운 동물이 없다. 지금은 860 피트가 넘는 산꼭대기에서 집사람과 둘이 사는데 사람들은 외로워 어떻게 사느냐고 안쓰러워한다. 나는 한반도 외로워 해본 적이 없다. 매일 할 일이 많고, 내겐 음악이 있어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이 적어 화 날 일도 적다.

나는 호랑이처럼 짝을 고르는데 신중을 기했다. 다들 좋은 사람만나 가정을 이루지만, 나는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 한번의 기회를 노렸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고, 늦은 대신 지금까지 별탈이 없이 잘 지낸다. 자식이 귀한 호랑이는 안 닦고 싶었지만, 그것도 닦았으니.

호랑이는 아주 프라우드한 동물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리라. 우리 서울대생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서울대 플러스 호랑이 띠라 그런지 자존심이 강해서 세상 살기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나는 올해 나이 72세. 작년에 뉴욕주 부동산 브로커 라이선스를 따고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서 매주 음악 선생과도 만나 음악을 만들고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쉽지않은 일이지만 꼭 이름을 남기고 싶다.

New Year's Resolutions

벌써 환갑~ 여행을 떠나려나



강호석
(어바인, 상대 81)

벌써 환갑이라 ~. 놀라울 따름이다. 2022년을 맞이하는 1962년생은 올해 환갑이 되는데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다. 정신이 숙성하는 속도가 육체의 진화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일까.

현대 육체의 나이가 이전 세대의 70%라는 최신이론과 이전 세대의 정신 나이가 현대 정신 나이의 70%라는 나의 이론을 강제로 끼워 맞추면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는 모순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 나도 이제 환갑이 되고 막내가 대학을 다닌다고 집을 떠나 갔으니 부부 둘만 집에 남게 되었다. 25년 가까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한다.

사실 2020년도 가을에 막내가 대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여행을 해야지 하고 계획했지만 코로나가 이 모든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어 버렸다. 75세 정도까지는 육체가 어느정도 정신적 연령에 맞춰 지탱하겠지 라는 기대속에 환갑인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정도는 여행으로 인생을 즐길까 희망해본다.

일년에 네번정도 여행을 할까 생각중인데 한번은 한

국, 한번은 외국, 또 한번은 미국동부, 나머지 한번은 미국서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게 내 나름대로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첫 단계는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이 첫번째 단계가 나에겐 제일 즐거운 시간이다. 어디로 갈까, 어디서 자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어떤걸 먹고, 어떻게 쉬고 등등.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고 마음껏 상상하며 나의 생각이 반영되는 시간이다.

두번째 단계는 실제 여행을 하는 시간이다. 즐거움도 많지만 괴롭고 힘든 순간도 많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느끼는 즐거움은 엄청난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추억의 시간이다. 사진속에서 기억속에서 여행후에 남아 있는 추억은 대체로 즐거운 것만 주로 저장한다.

이제 여행이 환갑이후의 내 삶에 제일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것인가. 호랑이해를 맞이하면서 드는 내 느낌이다.

탱고는 삶의 활력 ... 동호회에 더 많은 참여 바라



최원선
(워싱턴 D.C., 공대 93)

2021년은 서울대 동문회 워싱턴 지부 아크로폴리스에 조인해서 아르헨티나 탱고 동호회를 통해 너무나 좋으신 동문님들과 인연을 맺고 따스한 정을 나눈 한 해로 기억될 듯 합니다.

지난 여름, 이주희 총무님의 동문회에 대한 Linked-In 메시지 한 통으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워싱턴 지역에 살면서도 동문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처음에 그 메시지가 스팸이 아닐까 의심을 하기도 하였지만, 덕분에 조인하게 된 아크로폴리스에서 사대 92학번 김량국 동문님과 함께 탱고를 가르치기로 의기투합하고, 소셜댄스를 배우고 싶으셨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으셨던 여러 동문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호응해 주신 덕에 우리 탱고 동호회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스템이 없이 때 순간 리드와 팔로우를 통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춤인 아르헨티나 탱고는 걸을 수만 있으면 출수 있는 춤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평생 즐길 수 있는 춤입니다.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애환이 담긴 탱고는 한국인의 한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어서 이국적이거나 낯설지만은

않은 감성의 춤이기도 합니다.

“혼자 춤 추는 것보다 둘이 추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 이전까지 발레가 취미였던 저는 포스트닥을 했던 NIH 랩 동료의 이 한마디에 탱고에 푹 빠져서 3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학자에서 특허 변호사로 커리어를 바꾸면서 일하게 된 첫 로펌을 소개해 주신 분도, 변호사가 될 때 신원 조회에 서명을 해준 이들의 대부분도 탱고 친구들이었을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 탱고는 빼놓을 수 없는 일부입니다.

지난 8월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면서 탱고 수업과 식사, 탱고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우리 ‘탱고방 식구들’과 끈끈한 정이 생긴 것도 2021년에 가장 감사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탱고 동호회는 10여명에서 시작한 모임이 벌써 두 배가 넘는 인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DC 탱고 커뮤니티의 가장 큰 탱고 연말 파티에서 회원님들의 성공적인 첫 데뷔도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동문분들이 저희 동호회에 조인해서 저희와 함께 끝없는 탱고의 매력에 푹 빠져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이 태어나 새해맞이 남다른 느낌



김민우
(워싱턴 D.C., 외교 05)

12년 전, 2010년은 갓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의 신분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굳혀가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는 오늘은, 미국 Washington DC에서 국제 소송 및 통상법 변호사로, 여전히 열심히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1년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어려움의 연속인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도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고,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딸 아이의 유치원은 하루 걸러 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재택 근무 덕에 가족과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을 조금 더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주니어 ‘어썸’ 때는 사치였던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딸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며 잠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축복같은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은 저에게 하나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범띠 동문’으로서 새해 소망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갓 세상에 나온 둘째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코로나 시국에 육아를 한다는 건 매일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노심초사하고, 나아가 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려하고, 나누기에 인색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범의 해, 새해에는, 웅크리기 보다 더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주변을 살피고,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해봅니다. 매일 매일에 더 진실되게 임하고,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작년보다도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최운화의 새해 경제 전망

‘작년 호황’ 증시, 테이퍼링·금리인상·오미크론이 변수
집값은 상승세 둔화, 이자율 오르면 수요도 줄어들 듯



최운화
(상대 78)

주식시장 상승세 지속될까

팬데믹 이후 공황상태까지 빠졌던 주식시장은 천문학적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2년간 연속 기록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시장 이론은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주식의 가격은 현재 나와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시장에서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정보가 거의 다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어서 이 이론의 이름에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확대하면 주식시장에서 시장은 모르는데 나만이 아는 정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분석을 특별히 잘 한다고 해도 시장의 정보를 넘어서 더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없다는데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운이 좋거나 둘째 불법(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작전을 편다거나 하는 행위)을 통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론에 반론도 많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대로 결정과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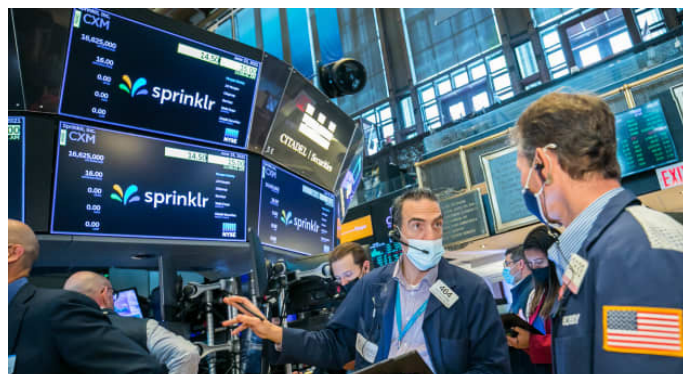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배경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잘 될 것이라거나 나빠질 것이라거나 하지 않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시장에 과연 영향을 미칠지 또 미치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바로

새해 미국의 경제는 ‘흐림’일까, ‘맑음’일까. 전문가들마다 예측이 엇갈린다. 경제는 살아 숨쉬는 생물이기 때문 일 터다. 이에 본 동창회보는 최운화 동문을 초청, 새해 전망을 들어봤다. 최 동문은 유니티뱅크와 CKB뱅크 행장을 지내 남가주 한인 금융계에선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다. 사모펀드인 Quantum Group 대표로 투자에도 관여하는 등 실물경제에도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제의 두 축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새해 경제를 진단한다. - 편집자.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입니다.

테이퍼링

지난해 12월 연준은 테이퍼링 즉 시장에서 연방채권과 주택모기지담보부채권을 사들이던 양적완화축소를 3월까지 조기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적완화는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만큼 돈을 푸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앞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를 시장용어로 유동성이



새해 뉴욕증시는 금리와 테이퍼링, 오미크론 등의 변수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라고 함)의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리인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세번 올릴 것으로 시사했는데(결정이 아님)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시장에 채권을 싸게 팔아야 합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역관계에 있어서 싸게 팔면 금리가 올라감)

그러면 역시 채권이 시중에 풀리고 대신 시중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들어가서 소각됩니다. 이는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앞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효과가 다른 점은 테이퍼링은 시중에 늘어나던 유동성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금리 인상은 시중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프라와 미국재건안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두 안은 동시에 재정적자를 늘리고 물가상승 압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건설업과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소비와 고용

아직도 소비자들의 저축은 높습니다. 거기에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용 수요가 높아 임금인상도 합쳐져 소비력은 새해에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이제 코비드19 확대의 주종은 오미크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은 확대속도가 그 이전 변이보다 몇 십배 빨라 자칫 경제붕쇄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나타난 추세를 보면 중증율과 사망율이 높지 않아서 오히려 코비드19의 일상화(Endemicism: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격하되는 것으로 정상 생활에서 독감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공급망 차질

가격 상승과 백신보급으로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어 새해에는 상당한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반구는 바로 앞서 언급한 오미크론의 향방입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다시 적극 봉쇄에 들어가면서 공급차질이 더 심해질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류대란

아직도 안개속에 있는 물류대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의 물량이 연말대목의 늘어난 물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류문제의 연장을 우려한 수입업자들이 미리 또 더 많이 사놓겠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말대목이 지나고 나서 수입량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앞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테이퍼링 조기 종결,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프라와 미국재건안으로 재정책대, 여전히 강한 소비력, 오미크론의 확대, 공급망 차질 악화, 물류대란 지속 등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들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의 추이를 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시장 상승세 둔화될 듯

그 동안 양적완화는 주택모기지담보부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채권가격 상승으로 모기지채권 금리 인하효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모기지채권 구입이 줄어들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리인상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은 모기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주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에 연동되는데, 기준금리가 새해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도 장기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기 금리는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전망이 좋을수록 또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올라가는데 이 장기금리가 오르지 <13면에 계속>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볼 때 중단기 경제성장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침체 가능성까지 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금리는 앞으로 몇 달간 테이퍼링이 중단되고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날 추이를 봐야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만성적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비 상승, 주택건설용 토지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주택공급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단지 가격상승으로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매각 인센티브가 올라가 있어서 이 부문에서의 공급이 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택소유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오히려 주택을 팔지 않을 수도 있어 어느 쪽으로 추세가 나올지 확실치 않습니다.

주택가격

급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새해에도 가격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가격인하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금리와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인데 그 규모에 따라 가격상승을 둔화나 아니면 하락이나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택소유 경향

팬데믹 때 재택근무가 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단독주택 수요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하나는 도심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거주공간이 좁은 아파트로부터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재개방하고 재택근무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출퇴근의 불편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출퇴근비용이 올라가면서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과 그 이후의 변이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아직 알 수가 없어 이 추세변화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외곽선호로 바뀔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요 사항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조하셔서 새해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강하게 모든 도전을 잘 이겨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국 양도소득세, 미국서 또 내야하나

이중과세방지조약 연방은 면제, 주정부는 10% 미국은 1,158만불까지 증여세 면제, 한국은 제한적



이종건 변호사
(경영학과 84)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효한가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한국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효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되 증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하고, 그 유언장을 공증까지 해야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도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세 비교

한국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시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현재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에게는 일괄공제 2억원 밖에 해주지 않으며, 배우자 공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내에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 2억원을 뺀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에 이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인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生前에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녀에 물려주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주의할 점

한국 거주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미국 거주자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

부동산을 포함해 한국의 재산은 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본국 재산을 매각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다. 이에 동창회보는 미국(LA)과 한국(서울)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건 동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두 번째 시리즈인 1월호에는 한국 부동산 상속, 매매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난 12월호에는 한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편집자.

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상속세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후에 매매를 해도 그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가 정확히 부과돼야 완납이 결정되고, 완납이 되어야 매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미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조사기간에는 사망하신 분의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조사를 하므로 그 은행 거래내역 중에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합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망 직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되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매매시 주의할 점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처분위임장을 영사관에서 공증하거나 미국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를 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매도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송금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매매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나, 비거주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송금한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만큼 미국에서도 공제를 받으므로 미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어서 주정부에는 약 10%의 주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의 세금이 없는 워싱턴주나 텍사스주 등에서는 이같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겨서 180일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이종건
한미 국제 법률사무소 대표
전화 213-787-3107
이메일 jklawus@gmail.com

📷 김양희의 포토 에세이



데스밸리의 샌드 둔스는 폭염이 바람과 모래를 섞어 구워낸 예술작품이다. 겨울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아 지난 여름의 열정이 모래 속에 숨겨있는 듯해 신비감을 더해준다.



김양희
(음대 77)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자연의 신비 ... 그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스밸리다.

여름철은 물론 늦은 봄이나 이른 가을 까지도 불볕더위가 사그라들지 않아 11월부터 4월정도가 방문하기 좋다.

데스밸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광활한 사막이 연상되는 모래 언덕이 있다. 고운 모래입자가 산처럼 쌓여 바람이 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줄무늬와 능선이 형성된다.

사막의 모래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곳에는 특정한 트레일이 없다. 부드러운면서도 주름진 높고 낮은 모래 언덕 위를 걷다보면 판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데 이 곳은 주변 산맥과 계곡에서의 침식작용으로 부서진 암석에 의해 모래 언덕이 만들어질만큼의 충분한 모래가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래를 한 곳에 모아 언덕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래가 날아가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림막이 필요한데 산맥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며 이렇게 거대한 모래 언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스밸리에는 다섯 군데 (Mesquite Flat Dunes, Eureka Dunes, Saline Valley Dunes, Panamint Dunes, Ibex Dunes)의 크고 작은 모래 언덕이 있

다. Mesquite Flat Dunes는 가장 높은 언덕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명해 사람들이 즐겨 찾고 사진도 많이 찍는 곳이다.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은 Eureka Dunes에 있으나 이 곳은 4륜 구동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모래 언덕 사진을 찍기 위해 가장 좋은 방문 시간은 해 뜨기 전이나 해질녘으로, 이 때 가장 아름다운 색과 빛의 향연을 볼 수 있고 멋진 음영의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사진찍으러 갔던 곳은 그 중 Ibex Dunes였고 Mesquite Flat Dunes보다는 높은 모래 언덕들이 있는 곳이다. 일행 일곱 명이 카메라 장비들을 두 대의 SUV에 나눠 실었다. LA를 출발해 네 시간 넘은 운전 끝에 도착한 그 곳에서는 인적도 없는 넓은 벌판에 바람만 불고 있었다.

오고 가는 차들도 없는 황량한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보지도 않는 모래 언덕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각자 카메라와 렌즈가 담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삼각대를 어깨 위에 얹었다. 마치 총대를 메고 전쟁터를 향하는 군인들같은 모습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다.

사방이 허허벌판이고 밤에는 워낙 어두워서 돌아올 때 차를 찾기 쉽도록 리더는 램프를 켜서 차 위에 올려놓고 모



▲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메마르며 가장 낮은 곳. 그러나 광활한 사막과 온갖 색깔로 입혀진 모래산은 생동감이 넘쳐 내 몸에 기를 부여 넣어 준다.

◀ 새벽녘의 데스밸리는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해준다. 시간이 정지된 듯 태고적 고요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다.

Sand Dunes in Death Valley

죽음의 폭염이 빛은 모래언덕 ... 미치도록 아름답다

은 동그란 라인으로 담기는데 여러 장을 찍어 합성으로 한 장의 완성된 사진을 만들게 된다. 별의 움직임을 담아 야하니 렌즈를 열어 놓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늦은 밤 돌아가는

시간이 되니 켜놓은 램프 생각이 났다.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다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걷다가 일행 중 제일 젊은 사람이 왼쪽 방향으로 멀리 보이는 아주 작은 빛을 발견했다.

우리는 램프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기에 다들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다.

목적지가 보이고 걱정이 사라지니 어깨에 멘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의 무게가 덜어진듯 느껴졌다. 빛과 어우러진 자연의 멋진 장면을 카메라에 담던 황홀했던 순간들도 생각나고, 이름이 무시무시한 지역에서 살아나와서인지 뭔가 큰 일을 해낸듯 뿌듯함이 들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에 도심지의 불빛을 보며 다음에는 데스밸리의 다른 곳도 도전해 보고픈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되니 켜놓은 램프 생각이 났다.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다들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한참 걷다가 일행 중 제일 젊은 사람이 왼쪽 방향으로 멀리 보이는 아주 작은 빛을 발견했다.

우리는 램프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기에 다들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다.

목적지가 보이고 걱정이 사라지니 어깨에 멘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의 무게가 덜어진듯 느껴졌다. 빛과 어우러진 자연의 멋진 장면을 카메라에 담던 황홀했던 순간들도 생각나고, 이름이 무시무시한 지역에서 살아나와서인지 뭔가 큰 일을 해낸듯 뿌듯함이 들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서울대 남가주 합창단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지난해 12월 11일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회에서 공연하고 있는 합창단. 김병완 동문을 단장으로 모두 20여 명이 매주 수요일 만나 연습을 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서울대학교 동문 합창단의 연습장이다.

단장은 합창단 경력 거의 20년 짜인 김병완(공대 58) 동문이다. 창단 초창기인 2004년부터 테너파트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으로 2년 전 단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 약 2년의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해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모임 공연을 계기로 연습이 시작되면서 합창단은 다시 활기와 즐거움을 되찾았다.

남가주 동문 합창단은 창단 첫 해부터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과, LA의 유명

단장은 김병완(공대 58) 동문 LA 디즈니 콘서트홀서도 공연

음악학교인 콜번 스쿨 지퍼홀에서 정기 공연을 갖는 등 남가주에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도 초청돼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단원들의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0여 명이 매주 정기 연습에 참석한다. 위로는 1956년 입학한 선배에서부터 아래로는 2004

학번의 젊은 후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동문들이 목소리를 합하고 있다.

소프라노 파트의 김옥경(생활과학대 60) 동문은 “합창단에 한번 나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동창회에서 가장 즐거운 모임이라고 자부한다” 고 말했다. 성악 전공자인 소프라노 조은아(음대 89) 동문은 “집이 멀어서 오기

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합창단에 오면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즐겁고 재밌다” 며 합창단 예찬론을 펼쳤다.

김병완 단장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각 파트마다 성악 전공자들이 리드하고 있다” 며 “음대 동문들의 참여는 물론,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단과대 출신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고 말했다.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LA의 나성영락교회에서 모여 장진영(음대 성악과 88) 동문의 지휘, 황만영(음대 피아노 84) 동문의 반주로 연습을 하고 있다.

취재=손영아(음대 85)

합창단 지휘자 장진영(음대 88)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 고 이상훈 선배의 권유로 지휘봉 잡아



음대 88 학번 베이스 장진영. 서울대 남가주 합창단을 지휘한다. 아마추어가 대부분인 선배들과 몇몇 전공 후배들을 이끌어 아름다운 화음과 유니크한 합창 무대를 이끌어 낸다.

단원들의 음악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휘자의 부드러운 성품과 매력적인 베이

스 음성이 그 비결이다.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초등학교 성가대에서 노래했고 소풍때마다 장기자랑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고등부 성가대 지휘자가 거의 강제적으로 그를 끌어 성악 레슨을 받게 했고, 이왕이면 서울대 성악과를 목표로 했다.

입학후 인재들이 많은 서울대에서 고민과 좌절도 했지만 결국 졸업전 공연한 ‘파우스트’에서 주연 메피스토펠레스를 역을 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졸업후 국립합창단을 거쳐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LA에서 쌓은 경력과 신앙

“원래 이태리 유학을 계획했는데 김성길 지도교수님께서 텍사스 델러스의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를 추천해 오디션을 통과하며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후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하며 LA 오페라 컴퍼니에서 resident artist, LA 필하모닉, 패사디나 심포니 등과도 협연을 했다. 현재 앤틸롭 밸리 칼리지 교수직에 있으면서, 그의 깊은 신앙을 음악으로 지켜가며 ANC 온누리교회 2부 성가대, 남가주 장로 성가단 지휘자를 맡게 됐다.

“서울대 남가주 합창단 지휘는 당시 단원으로 계시던 아버님 연배의 공대 이상훈 선배의 인도였습니다.”

체장암 투병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던 이선배님은 꼭 서울대 합창단 지휘자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유연처럼 된 이말씀으로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지휘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2015년부터 지휘하면서 매년 콜번 스쿨의 지퍼홀(디즈니랜드 스머홀)에서 정기공연을 가졌고 2018년에는 한국국립합창단의 한민족합창 축제에 초청돼 뜻깊은 공연도 했다.



최고령(?) 여성 단원. 왼쪽부터 조충자(간호 61), 부아린(문리대 64), 김수향(간호 68).

행복한 합창단을 추구

그는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를 하면서 행복해 지는 것을 원한다. “원로선배님이든 젊은 후배들 누구나 공감하고 또 청중들이 좋아할 레퍼토리를 추구합니다. 동문합창단은 외로워질 수 있는 이민생활에 함께 모여 노래하며 추억을 되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경험의 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새 하나의 소리가 될 때의 감동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되는거죠.”

장진영 지휘자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동문들은 실력,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환영한다.

문의 (818)307-7059

취재=김중하(인문대 85)



박제환
(남가주, 인문대 75)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민족의 정기를 품은 호랑이가 어흥하면서 산에서 내려와 코로나에 지친 영혼들을 일깨우며 그래도 가야할 길이 있다고 소리치는 것 같다. 지금은 계절상으로 겨울. 코로나를 극복하며 헤쳐나가는 도중에 물류대란, 공급부족,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이 있지만, 겨울을 참아내며 꽃을피워내는 인동초와 같이 우리 동문들의 강한 인내심과 지성이 이를 극복하리라 믿는

다. 'Stand and Deliver'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른다.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노래했지만, 마음을 잃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미 봄은 오고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올 남가주에는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가물어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었다. 비온 후 남가주의 겨울산 꼭대기에는 흰눈이 덮였지만 곧 동백꽃, 배꽃, 파피꽃 등 야생화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날 것이다.

코로나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신약개발에 몰두하는 동문도 있으며, 메타버스의 물결을 타고 비즈니스의 야망을 꿈꾸는 동문도 있다. 꿈은 겨울잠을 자며 몇개월을 그냥 보내지만, 인간은 가만히 있도록 지성이 허락하지 않는다. 인류는 여러번 팬데믹을 거치며 도전에 응전했다. 중세시대에 페스트라는 역병

인내와 지성으로 팬데믹 극복을

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나, 이를 지나면서 의학적 깨우침이 있었고 소독에 대한 자각을 하게되었다.

중세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음악, 미술 등 다방면에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다. 20세기 초반 2차세계대전 후 스페니스플루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이를 넘어서 자동차와 도로의 발전 등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다.

21세기 들어 코로나가 엄습하기 전 인류는 인터넷시대를 학습했으며, 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재택근무 등으로 3년차에 접어든 팬데믹 기간을 헤쳐나가고 있다. 미국은 Operation Warp Speed로 백신을 개발했으며,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에서 오는 탁월한 계절감각, 가무를 즐기는 기, 빨리빨리 기질에서 오는 성실함 등으로 팬데믹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K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넷플릭스 석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남가주 동문회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첫해에는 모든 대면 활동이 취소되고, 임원단은 줌으로 세미나 등 모든 모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꼭 필요한 정기총회도 소수의 임원들이 추운 야외에서 진행하고, 역시 쌀쌀한 야외에서 음악회를 갖기도 했다. 가을 겨울엔 피크닉과 송년축제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들이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동문 서로간에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 곧 수그러들 것이란 과학자들의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

인류가 인내로 새로 힘차게 일어나듯, 동문들도 새로 기운을 차리고(Regroup) 일어설 것을 고대한다,



김영천
(뉴욕, 약대 72)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 속에도, 동창회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동문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해는,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봄의 새싹처럼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기운이 있는, 한 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감염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SNS 활성화로 동문간의 소통 강화

이에 뉴욕지역 동창회에서는 카톡등 SNS를 활성화해 동문간의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동문 상호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고, 동문간의 만남과 일상적인 동창회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해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모임은 실외모임으로 하고, 소수의 작은 공통관심사의 모임(바둑 동호회, 시모임 등)의 활성화를 적극 후원하여, 바쁜 사회생활로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동문간의 많은 소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력이산' 곧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

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동문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심각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동문들이 합심해 보다 나은 동창회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2022년 검은 호랑이해는,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봄의 새싹처럼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기운이 있는 한 해를 의미하지만, 건강에 관한 전통의학에서는 밖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의 병사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문들의 평안하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미국서 가장 '핫'한 곳... 변화 모색할 터



김순기
(북텍사스, 치대 8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북텍사스 지부 신임회장 김순기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하는 새해가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를 포함한 북텍사스 지역은 미주 전역에서도 가장 인구 유입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핫'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대 동창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고 자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뀐 탓인지 젊은 동문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본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재들의 유입이 감소하며, 명문 대학이 이곳에 없다는 점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구 증가 등은 또 다른 면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곳만의 특수한 사정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곳 북텍사스 지역도 이 곳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활동의 변화 등을 모색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동문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김윤하
(시카고, 공대 66)

새해에도 '동문친구'들의 우정을 기대하며

지난 일년 동안 저와 동창회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셔서 많은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임원진을 격려해 주셔서, 모든 행사 때마다 정겹고 즐거운 분위기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그 크신 마음에 저희 임원진들 모두는 많은 것을 다시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기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 Covid-19과 함께 하여야만 하는 시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큰힘이 되어 주신 것은 저의 친구분들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한 잔의 따뜻한 차 일때도

있고, 맑은 이중 유리 찻잔, Elderberry Syrup,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 일들을 스스로 떠맡아 주시던 임원진과 고문 여러분, 또한 스와재와 관악 클럽 여러분, 가끔은 저와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의견 교환을 해 주셨던 분들 (결국 모두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매 모임 때마다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동창회원 여러분, 노명호, 신응남 미주 동창 회장단 여러분, 그리고 저를 공처가로 불리우게 하는 저의 인생 반려자입니다.

며칠전 한 고문님께서 저에게 보내 주신 글 중에, "회장님, Covid의 어려운

상황에서 동창회를 멋있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동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때문이 아니고, 저의 모든 친구분들 덕택입니다.

바쁜 한해 였지만 이 모든 친구분들의 은혜로 큰 보람과 기쁨, 즐거움을 가졌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새해에도 동창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으로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계속 발전하고, 동창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같이 하시는 새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이성숙
(필라델피아, 가정대 74)

회장단 세대교체로 젊은 동문회 됐으면

새해 임인년을 맞아 동문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때를 참고 기다리며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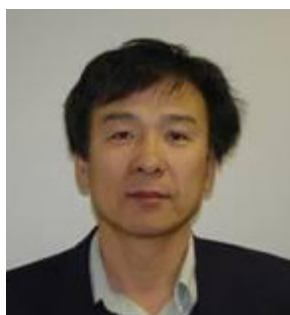
필라 동창회는 지난해 6월 개최한 총회 및 음악회, 10월 중순 골프 대회, 12

월 송년회 겸 겨울 음악회 등으로 동문들과 만남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한 해였습니다.

거의 매달 열리는 필라 지부 임원회에 참석하셔서 사심없이 동창회를 위하여 의논하고 카톡으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들과 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1977년 발족된 필라 동창회는 전 회장님들과 동문님들의 애정과 봉사로 오늘날의 34대 회장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젊은 세대 중에서 새 회장님이 추대돼 더욱 더 활기 찬 동창회가 되며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치현
(하틀랜드, 약대 77)

장학금과 경비협찬 동문들께 감사

선후배님들, 그 간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요? 어느덧 신축년 한 해도 저물고 임인년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제대로 된 모임 한 번 갖지 못하고, 보고싶은 얼굴들도 못 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메일이나 줌을 통해

가족의 애경사 소식은 물론 인문학적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과 견해를 제시해 주신 동문님들께 존경과 함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학금과 경비 협찬 등 물심양면으로 끊임없이 동창회를 도와주신 선후배 여러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없는 한 해가 되어 마음놓고 서로 만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SNU Heartland 선후배님들, 임인년 새해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며,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상근
(워싱턴 D.C., 법대 76)

'Mudita'가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미주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지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말부터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코비드가 작년에는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 코비드-19를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Schadenfreude(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닌 Mudita(남을 기쁘게 하는데서 오는 행복)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김유경
(뉴잉글랜드, 음대 72)

지난해 7월 회장직을 맡고 나서 평소와 달리 동문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지, 팬데믹 때문에 시작했던 온라인

지부 창립 25주년 기념 문집 발행

포럼은 얼마나 더 진행해야 될지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젊은 동문 모임인 관악클럽의 야유회와 전체 동문 야유회 및 두번의 비대면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들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꼈고 이 만남들이 팬데믹 동안 있었던 일중 가장 보람있는 경험의 하나가 되었다.

2022년은 그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첫 행사는 1월 8일 열린 온라인 신년 하례식이다. 본인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차기회장님이 맡아 차질없이 진행하셨다.

3월 6일에는 제노스코 대표인 고종성 박사(사대 75)의 '치매(알츠하이머) 신

약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될 포럼이 참으로 기대된다. 고 박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세계적으로 3천만명에 이르고 미국의 경우 5백만, 한국도 1백만명이 넘어 치매 치료제 개발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오는 6월에 있을 장학생 선발은 우리 지부에서 수년간 해온 지역사회를 위한 뜻있는 전통이다. 작년 작고하신 이재신 동문(공 57) 가족의 장학금 기부와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많은 동문들의 후원으로 능력있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발굴해 장학금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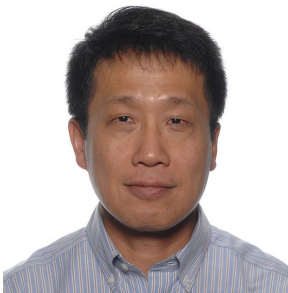
봄에는 관악회 신진우 회장(농생 04)

의 주도로 두번째 관악회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행사가 되겠다.

그밖에 뉴잉글랜드 지부 25주년 기념집 발행은 김정선 전 회장(문 66)의 열정으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동문들의 수필, 미술 작품 등 사는 이야기가 실릴 이 기념집은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임영호 동문(공 72)이 회장직을 이어 받게 된다. 동창회가 더욱 활기치게 이어지리라 믿고 나 또한 그런 동창회를 위해 뒤에서 적극 도움을 다짐한다.

모교생들의 방문맞아 프로그램 마련



차재호
(미네소타, 농대 84)

새해 활동목표는 '정답고 소통하는 동문회 모임'입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소식은 서로 나누어서 위로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세웠습니다.

세미나 주제 다양화: 그동안 줌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학술 위주에서 취미 및 신규기술 공유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주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어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정보사이트 활성화: 동문회가 운영중인 구글 드라이브와 페이스북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새로운 정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교 미네소타 방문행사: 올해엔 모교생들의 미네소타 대학 방문(Go Minnesota)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교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많은 서울대생들의 계절수업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설레임의 불꽃이 계속되는 해가 됐으면



최희덕
(플로리다, 사대 68)

고 든든한 구조대로 삼으려는 열망입니다. 밝고 새로운 햇살이 미치지 못한 어두운 구석에서 솟아날 해결책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끝날 것 같았고 설마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다니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지 삼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울증 생기셨다는 분의 근황에 순간이라도 함께 우울했습니다.

60년대 중고교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던 광복절 기념식, '새벽 종이 울렸네'가 발걸음을 종종거리게 한 조희시간, 교실에서 조개탄 난로위의 도시락 반찬냄새와 아지랑이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증기가 교탁 선생님 모습을 위압하는 4교시, 생각없이 지났던 그때가 새롭게 기억되는건 고교, 대학 동문들이 잠자던 과거의 세계로 나를 불러내서인듯 합니다. 동창회보를

받아보니 동송동, 태릉, 용두동, 관악...에서 뚫어오르던 동문님들의 세상을 향한 꿈이 분출되어 정착하신 곳을 함께 밟아보는듯 합니다. 우리의 불꽃은 어디에 떨어져도 주위를 불사를 수 있다고 선후배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태평양을 건너올때 가졌던 설레임이 멈추지 않았고 내가 서있는 곳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민자의 도전이 후세를 통해서도 모국의 후배들에게서도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긋, 새로 대하는 이웃과 때로 Go with a flow는 적당한 타협(compromise)이 아니라 적응(adaptation)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기후와 함께 익숙지 않은 문화에서 불편함을 통해 행복한 해결책들이 보이지 않겠나 기원해봅니다. 저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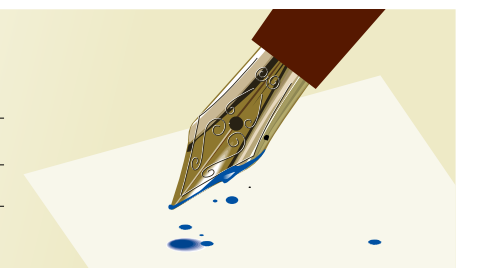
씨를 받아 키운 파파야 다섯그루에 가득한 열매는 요즈음 일상의 한끼식사 대용으로 되었으니 플로리다 이주 대단한 성공사례라고, 나는 아직도 진화된 적응단계*에 있구나 하며, 자부하기도 합니다. 다산해준 파파야나무가 자랑스럽고 신통합니다. 심어준 나에게 이리 풍성한 보상을 해주니 고맙고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넘칩니다. 옆에서 쳐다보는 유기견 두녀석이 꼬리를 내젓고 있는 모습에 행복감도 충분합니다. 아, 나는 피조물임을 느낄때가 행복하구나, 아직도 변화하며 적응할 수 있구나 하며 닦친 앞날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감 직전이나마 임인년 새해인사 나누게 하신 편집부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동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득 나눠주시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daptation: adjustment to environmental conditions

2022! 분명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동문님들 생애에 이렇게 세숫자로 조합된 해를 앞으로 만나지는 못하실테니 말입니다. 한해를 마감할 때는 무언가 놓치는 것 같았는데 새해가 시작되니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희망이 솟고 잡아야 할 지푸라기도 많이 보입니다. 2022라는 숫자에 신비함을 걸어놓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품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원고 모집합니다



뉴잉글랜드 신년 하례식 58~09 학번까지 다양한 세대 참여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유경·음대 72)는 지난 1월 8일 줌 미팅으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노동완(공대 84) 총무의 진행으로 개최된 하례식에는 1958년부터 2009년 입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참가해 덕담과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는 소감을 나누며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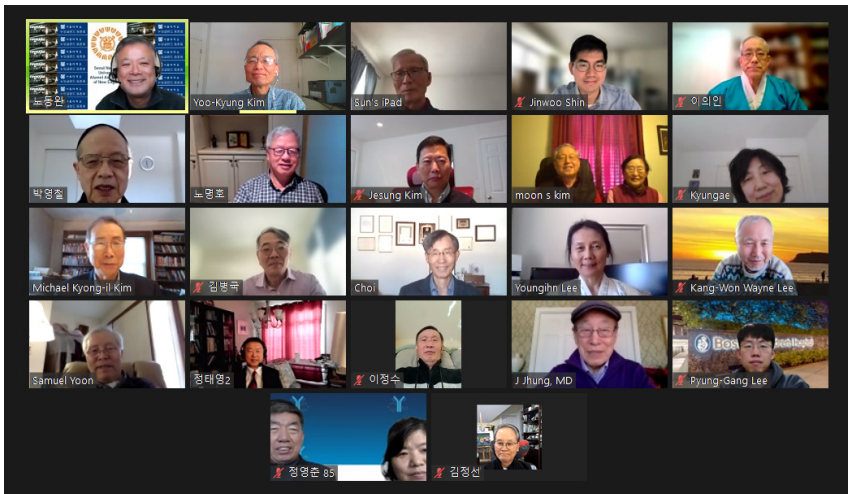
하례식에서는 교가 합창, 모교 홍보 동영상 감상,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 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산우회, 한미 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KSEA(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ABID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관악회 청년모임 등 동문 단체장들의 2022년도 계획 소개가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문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어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동문회에 대한 바람, 소모임의 활성화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팬데믹으로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와 동문 단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에 한국문화 알리, 포럼 일정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더 자세한 소식과 일정 등은 웹사이트(<https://snuane.org>)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지난 1월 8일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신년 하례식.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해 비대면 줌 모임으로 열렸다.

뉴욕 동창회, 5명에 장학금 지급 유학생 3천 달러, 동문자녀 2천 달러씩

뉴욕동창회(회장 금영천·약대 72)가 서울대 유학생 2명과 동문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초 장학금은 동문 유학생들에게만 지급됐으나 지난 11월 열린 장학위원회(위원장 조상근·법대 69) 모임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 동문자녀들에게까지 수혜자격을 확대했다.

장학금을 받은 동문 유학생은 오연택(음대 16, 맨해튼 음대 유학) 동문과 한종원(음대 19, 매니스 음대 유학) 동문이다. 오 동문은 피아노 박사과정, 한 동문은 성악석사 과정에 등록, 공부하고 있다. 두 동문은 각각 3,000 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동문 자녀 수혜자는 강미나(이준희 동문 배우자, 매니스 음대), 데이비드 페도(허유선 동문 자녀, 럿거스 대), 마커스 임(임창우 동문 자녀, 시라큐스 대)이 선정됐다. 동문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0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장학위원회는 선정되지 못한

3명에게도 500 달러씩 격려금을 보냈다. 동창회는 매년 두 차례 골프 토너먼트를 열어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명복을 빕니다

이종환(법대 51)

이종환 동문이 지난 12월 22일 뉴저지에서 타계했다.



에서 사목회장을 지내며 교인들을 위해 봉사했다.

고인은 전북 교육청 과장, 장학관, 교장 등을 지내는 등 줄곧 교육계에 활동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미국에 와서는 뉴욕 맨해튼의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워싱턴주 총회 겸 송년모임 IRS 비영리법인 등록 마쳐 큰 성과 이명자 회장 유임, 장학위원장에 김재훈 동문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총회겸 송년모임. 이명자 회장의 유임이 결정된 가운데 김재훈 동문이 장학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동창회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주 동문회 송년모임이 지난해 12월 11일 이명자(간호 74) 회장의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부부 동반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인을 곁들인 초밥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1부 순서인 총회에서는 회장단이 그동안 동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제청(IRS)의 501(c), 곧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다는 보고를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문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물론 앞으로 회사의 매칭 기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처음으로 장학위원회가 발족돼 김재훈 동문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첫 장학금 기부자는 이원섭 동문. 위원회는 이 동문의 기부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이명자 동문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동문은 2022년 한해 더 동문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차기회장은 하혜숙(간호대 77) 동문이 선임됐다.

이어 2부순서에선 워싱턴 음악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진, 신다나 동문이 나와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넷플릭스 최대 인기드라마 '오징어 게임' 임현빈 총무(공대 84) 부부가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홀짝 구슬 맞추기' 등 게임을 진행해 웃음꽃이 피었다. 게임 우승자에게는 김재훈 동문 부부가 마련한 요리용 집게가 선물로 증정됐다.

취재=박승현(음대 85)

김신행 교수를 보내면서

서윤석
(의대 62, 워싱턴 D.C.)



김신행(오른쪽) 교수와 서윤석 동문.

2022년 1월 7일 부음이 온 날
하루종일 눈이 내렸다
편지처럼 수북히 쌓였다
긴 하루가 가고 밤이 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바랜 사진 속에서 뛰놀던
젊은 날의 우리
아! 늦봄의 잔설(殘雪)처럼
하나 둘 서로를 떠나고 있구나
정직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
특별한 KTX 하늘의 영광으로
아브라함, 데이비드 옆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행운아
그대의 평화로운 새 모습
어두움 속에서도 눈부시구나
그래도 나는 아직 슬프구나
흘러내리는 이 눈물 어찌하리
코로나 끝나면 강남에서 다시 만나

바둑도 한 판 더 두고 싶었는데
책장 윗 칸에 꽂아둔
638쪽 국제경제론을 펼쳐본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찬송(讚頌) 속에서 비상(飛上)한 천상(天上)의 석학(碩學) 경제학자여
주님 품 속에서 편안하소서

고 김신행(법대 62) 교수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후학을 지도했다. 국제경제론 등 저명한 교과서를 저술한 바 있다. 지병인 혈액암 치료중 2022년 1월 7일 삼성병원에서 타계했다.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러블리 본스(The Lovely Bones)

구천을 떠도는 14살 처녀귀신의 '판타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몽환적으로 그려

영화의 사상이 상당히 동양적, 한국적이다. 이승에서의 억울한 죽음때문에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방황한다는 내용이 꼭 한국의 처녀 귀신 영화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원한을 풀어 달라고 이승의 사람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아예 이승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는다(마지막 한 장면 빼고). 그리고, 억울해 하지만, 복수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이 또한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한 한국의 한, 원한, 복수, 권선징악보다는 마치 이승에서 살아 있듯 평범한 주인공 소녀가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며, 가족애에 감사해하며, 정신적으로 성장/성숙하는 모습을 그렸다. 또 한편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딸/언니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슬프고 무거운 살인 영화라기 보다는 감독이 보여 주는 대로, 영화 속 이승과 저승 중간 지역의 따뜻한 색채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춘기 성장 영화, 영어로 흔히 'coming of age'라고 하는 종류의 영화이며 가족 영화이다.

장래 꿈이 야생동물 사진사인, 밝은 성격의 14살 소녀 수지 새먼(Susie Salmon-맛다, 성씨가 연어 새먼). 이 역을 맡은 배우 서얼샤 로넌(Saoirse Ronan)이 실제로 14살이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진하고 예뻐서 정말 14살 그대로의 옆집 사춘기 소녀를 보는 것 같다.

수지는 평소 말도 못 걸고 좋아하기만 하던 남자아이 알렉스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고 주말에 쇼핑 몰 안의 누각에서 만나기로 한다. 하지만 데이트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날, 이웃집 아저씨 하비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글자 그대로 꽃다운 나이에 데이트 한번 못해 보고 죽어야 한다니 누구인들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수지가 머물고 있는 저승과 이승의 경계 지대가 그려지는데 몽환적이다. 한국인들에게는 구천이라 하여 형체도 없는 허공 뿐일 것 같은 이미지인데, 이 점에서 영화가 한국인들 생각과는 많이



영화 '러블리 본스'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14살 소녀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린 판타지다. 구천을 떠도는 처녀귀신이지만 나중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었다.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다.



다르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에는 구천을 떠도는 존재는 형체도 없이 흰색 옷을 걸치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인데 반해 이 영화에서는 수지의 모습은 현실 그대로다.

블라우스 위에 빨간 조끼를 입고, 그 위에는 진한 청색 점퍼, 노란 색 아래 통이 넓은 코듀로이 바지를 입은 수지는 소녀답게 순진하고 예쁘다.

이렇게 이승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수지가 있는 곳은, 저승과 이승 사이의 비현실적인 세계라 밤과 낮이 공존하고, 해와 달이 좌우편에 떠 있고, 바다 사이로 길이 나있기도 하고, 지구 크기와는 비교가 안되게 작은 공같은 지구위에 나무와 풀이 있다. 나비들이 날아 다니는 아름다운 풀밭이 되기도 하고, 노란 색 말라 버린 풀들의 초원이 되기도 한다.

이승과 저승의 중간 세계에서는 소녀와 남자 친구가 만나기로 한 누각이 중심인데, 이 누각은 때로는 노란 풀밭 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호수 위에 떠 있기도 하고 산 속 한 가운데 있기도 하다.

오지 않는 소녀를 누각 안에서 애처로이 기다리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위기를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수지가 있는 공간도 누각이다.

영화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이승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수지와 현세에서의 가족들 그리고 살인범을 교차로 보여 주면서 계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수지는 클라리사의 몸을 빌려 그녀가 갈망해 왔던 키스를 알렉스와 나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용서하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며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장면도 처녀 귀신이, 남자와 동침함으로써 원을 푸는 한국인의 생각과 비슷하다.

엘리스 시볼드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 소설은 호평을 받았는데, 영화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 관객들 사이에서도 영화가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뚜렷이 갈릴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상미 하나는 뛰어난 작품이다.

전생과 환생... 입증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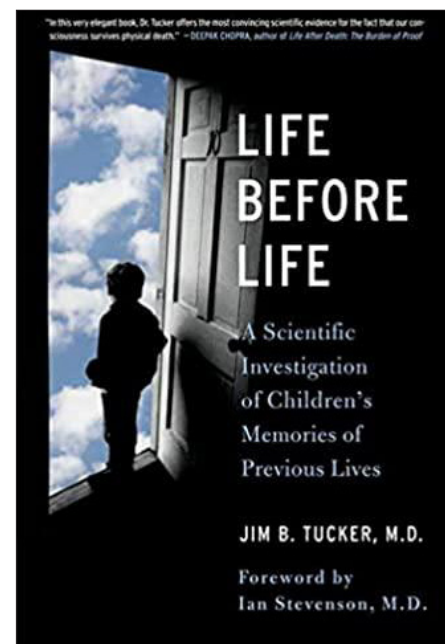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주도, 의학계의 관심 끌어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
(의대 79)

지난 호에는 임사체험 연구의 유래를 돌아보았다. 임사체험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경험이 여럿 있지만 특히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삶의 회고'다. 지상의 삶이 끝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나온 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데 거기서 얻은 지혜가 중요한 것이라. 삶의 노년기는 이런 삶의 회고를 미리 해볼 좋은 기회이다. 삶에서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느냐가 초점이다.



스티븐슨, 재벌기업 후원으로 체계 잡아 '불국사 창건' 김대성 설화도 흥미 끌어 윤회의 궁극적 본질은 도덕적 세계관

다음 큰 연구 분야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연구'다. 여기에도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가 있다. 연구의 문을 연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어머니가 윤회 환생을 믿는 신지학(theosophy) 회원이었다고 한다. 스티븐슨은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이뤄 38세에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주임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초심리학적 현상에도 관심이 많았던 스티븐슨은 미국 심령과학연구회가 주최하는 연례 에세이 경선에 전생기억담 44 케이스를 수집, 발표해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됐다. 1960년에 발표된 그의 에세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에세이를 읽은 제록스의 체스터 칼슨 사장이 후원을 자청, 스티븐슨은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스티븐슨 교수는 이후 수 년간 직접 이같은 사례들을 찾아 나서 1966년에는 20건이나 되는 케이스를 모아 발표한다. 칼슨 사장은 유언으로 10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그에게 기증했는데 기금이 확보되자 스티븐슨은 과감히 교수직을 사임, 이후 40여년 동안 전생 관련 연구에 힘을 쏟아 붓는다.

그가 수집 분석한 수천 건의 사례 가운데 특히 260 케이스는 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부분 해부학적인 기형이나 출생 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인데, 스티븐슨은 지난 1997년 이 사례들을 모아 '환생과 생물학'(Reincarnation and Biology)이라

는 두 권의 방대한 서적으로 출판한다. 그의 뒤를 이어 짐 터커가 현재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내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 자신도 두 권의 책을 출판했다.



스티븐슨 교수의 글은 무척 학술적이어서 읽기 쉽지 않은 반면, 짐 터커의 글은 좀 더 대중적이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Life before Life'(2005)와 'Return to Life'(2013)가 대표작이다.

임사체험이 이 삶에서 영적 세계로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라면, 환생 기억 연

구는 영적 세계에서 다시 물질 세계로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김대성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명문가정에서 환생해 재상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역사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은 현실로 그럴 수 있다는 의미여서 설화를 읽는 감회가 새롭다.

여기에서 구체적 케이스를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제한적이어서 독자들이 스스로 읽어보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시기 바란다.

임사체험 연구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대개 환영받는 내용들이나 아마 윤회 환생담은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내에서 윤회 환생의 역사를 돌아보며(Reincarnation in Christian History by Geddes MacGregor), 또 진지하게 기독교 신학에 통합될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Lifecycles by Christopher Bache, 한국말 번역 '윤회의 본질'; Reincarnation, The Missing Link in Christianity by Elizabeth Clare Prophet).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매 삶에서의 행동/업이 이 생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무척 도덕적 세계관이다.



박평일
(농대 68)

내가 보낸 워싱턴 폭설 사진을 받아본 LA의 노 시인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LA로 이사를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에 대해 내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 “눈은 나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즐겨야 할 문제입니다.”

산다는 것이 다 그런것이 아니겠나. 삶이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신비.

내가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 몇번이나 더 이런 폭설을 만날 수 있겠나? 미국 인디언들은 ‘몇번이나 폭설을 경험했느냐’는 횃수로 나이를 계산했다고 한다. 인디언들의 순박한 마음을 어슴프레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전기가 나가고, 물이 끊기고 인터넷이 나간 것도 잠시였다. 숲속에 아침 햇살

이 쏟아져 내리자 영원할 것만 같던 설국이 허무하게 녹아내리고 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상록수 나무가지들은 휘어져 땅이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일년 내내 독야청청 푸르겠다는 탐욕에 대한 참회의 기도가리라.

누굴 탓하겠는가? 심는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섭리인 것을. 그래도 그렇지, 심술궂게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 일이지.

어제 이웃 미츠가 폭설 속에서 우리집 눈을 치우며 열어준 새까만 드라이브웨이 위에 그의 따뜻한 우정이 별빛처럼 덩굴고 있다.

목마르고, 배고픈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빵 한 조각을 건넸던 신의 사랑이 바로 그런거였다. 미츠는 내가 이번 설국에서 마주친 선한 사마리언이었다.

테크 위 둥근 테이블과 4개의 의자 위에 아직도 눈시리게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있다. 누군인가, 햇살을 타고 올 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 어찌 저 순백한 아름다움을 내 때문은 손으로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설국에서의 잠상들

주여, 이 모든 설국의 아름다움들이 모두 당신의 은혜로이소이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나는 100% 당신의 것입니다. 때도 100% 당신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

복했니?”

그녀는 “설국의 고요와 침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어. 설국에서의 순간 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근심걱정이 많은 격순이 케를 입에서 터져나온 의외의 대답이었다.

며칠 후면 이 버지니아 숲은 다시 정상을 회복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는 듯이.

망각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절망도 아니다. 망각은 건강과 희망의 징표다.

신은 변덕이 심해서 늘 새롭고 신성한 것들을 좋아한다. 나도 알고있고, 버지니아 숲속 가족들도 모두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번 폭설로 인해 수 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휘어졌다. 죽어가고 아파해 했다.

그러나 숲속 가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투덜대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설국의 신비를 경외와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즐겼을 뿐이다.

겨울이 깊어가면 어찌 봄이 곧 오지 아니하겠는가?

버지니아 숲 속에서



겠습니다.

부엌에서 잔뜩 밀린 설것이를 하고 있는 격순이에게 물었다. “설국에서 행

괘종시계 호랑이 얼굴이

사람 키보다 큰 괘종시계가 벽에 등을 대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종아리에 쥐가 나네 내분비학을 전공한 대학 후배 얼굴이 떠올랐어

근육이 뻣뻣해 밑도 끝도 없이 터지는 일,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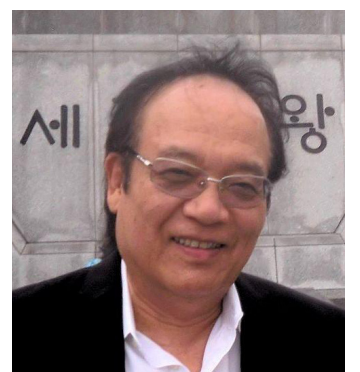
흐리멍덩한 메모리, *Tyger Tyger, 호랑이가 내 쪽으로 씩 한 발 다가온다

줄무늬 줄줄이 물결치는 色相, 호랑이 몸이 일그러진다

무너지는 겨울 파도, 호랑이 얼굴이 팽팽 울린다 당신이 망가지고 있어

내 얼굴이 팽팽 울린다 두 발로 서면 몸집이 사람 키보다 큰 호랑이가

폭폭 깊은 숨을 몰아쉬는데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서 랑
(의대 63)

*신비주의자, 선지자로 불리는 영국 시인 William Blake(1757~1827)의 대표작 ‘The Tyger’의 첫 구절.

시작노트

올해가 ‘호랑이 해’ 라는 걸 생각할 틈이 전혀 없이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얼마 전 윌리엄 블레이크의 ‘The Tyger’ 를 테마로 해서 이상한 시를 한편 썼는데 또다시 새해 벽두에 호랑이를 생각한다.

괘종시계가 굉, 굉, 보신각 종처럼 울리는 새벽에 입때껏 가만이 서있던 호랑이가 내 쪽으로 씩 한발 다가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황찬주
(인문대 84)

80년대 이후 학번의 ‘소회’

엽 회장의 허락을 얻어 제가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희 관악클럽 회원들에 비해 연로하신 선배님들은 남다른 애정과 추억, 우정같은 것들로 인해서 먼 타국에서 모이는 동문회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80년대 이후 입학한 학번들인 젊은 후배들은 선배님들에 비해 여러가지 이유에서 동문 모임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각종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요즘 동문 모임을 보면 선배님들도 예전의 번창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쉽지 않아 하시고 미국내 각 지역의 동문회도 대부분 학번을 기준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에 이민생활을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이민자들의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국에서 흔히 쓰는 어렵지 않은 단어



들도 현지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동포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나누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의 남미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온 후에야 드디어 제가 다녔던 학

교의 동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한국에서 요즘 많은 화두가 되었던 ‘서울대’ 기독권에 대해 말씀드리는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동문회를 한다고 하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스와재 동문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가에도 노래하듯이 동문회원들이 ‘새 문화와 새 생명을 이뤄가는 젊은 오

년들’ 로서 즐겁고 알찬 만남을 갖도록 노력하고 올 한 해도 수고하신 두 분 회장님께, 관악클럽과 스와재 회원들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클럽 회원 일동

노명호 회장님과 김윤하 회장님께,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에는 보내주신 성의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저희 시카고 동문회 산하 관악클럽 총회 때 보내주신 성의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가 한마디씩이라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두 분 회장님께 두 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봉투를 준비하려고 보니 어찌된 일인지 카드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카드를 써주신 저희 임원들께도 죄송하고, 특히 노, 김 두 분 회장님께도 면목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관악클럽 김동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청춘과 ‘재뉴어리 필링’

미국에선 무명에 가깝지만 일본에서는 TS 엘리엇이나 로버트 프로스트 만큼이나 존경받는 시인이 있다. 새뮤얼 울먼(1840~1924). 그가 생애 마지막 40년을 살았던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그의 기념관이 있다. 일본 기업들이 돈을 모아 울먼의 생가를 사들여 복원한 다음 앨라배마 주립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기념관엔 영어와 함께 일본어 안내문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울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경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워 일본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시를 통해서다. 그의 시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으면 일본인들이 그의 고향에 기념관을 다 세워줬을까. 정작 미국인들은 울먼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데다.

시의 제목은 ‘청춘(Youth).’ 일본인들이 울먼을 알게 된 건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자 일본 점령군사령관인 맥아더 덕분이다. 명성과 위엄에 걸맞지 않게 맥아더의 집무실은 아주 소박했다. 벽에 걸린 장식품은 달랑 액자 하나 뿐. ‘청춘’은 바로 그 안에 고즈넉이 자

리잡고 있었다. 맥아더를 방문한 일본 유력인사들에 액자의 시가 금방 눈에 띄인 것. 읽어보니 내용이 감동 그 자체였다. 맥아더도 연설에 자주 인용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청춘이란 삶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네/ 장밋빛 불, 앵두같은 입술을 뜻하는 게 아니지/ 청춘은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라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스무살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이 더 청춘일 수 있지요/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은 아니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지... 그대가 기개를 잃고, 냉소

와 비관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스무살이라도 늙은이인 게지/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라도 청춘으로 살게 된다네.’

울먼은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부단한 노력으로 수준 높은 학문의 경지를 쌓았다.

‘청춘’을 지었을 때 그의 나이 또한 일흔 여덟살이었다니 울먼의 기개와 용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공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이 시를 맨 먼저 본 일본인은 히로히토가 아닌가 싶다. 정장 차림에 긴 장한 모습의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 히로히토와 노타이 셔츠 차림에 단추까지 풀어헤친 편안한 스타일로 손을 허

리에 얹은 맥아더. 두 사람의 뒤쪽 벽에 이 시가 걸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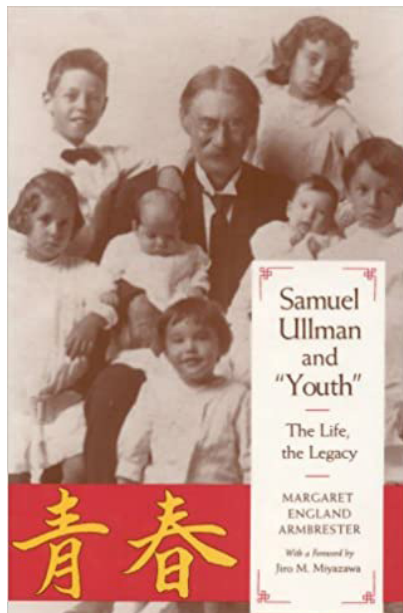
시는 일본어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원문과 함께 번역돼 큰 호응을 얻었다. 울먼의 ‘청춘’은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 실의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그의 열혈팬은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패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청춘’을 인쇄한 액자를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줬다. 지금도 이 시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울먼은 일본인들에게 영원한 스승일 터.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맥아더는 이미 일흔이 넘었다. 벽에 걸린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이제 1월도 끝자락이다. 사실 1월과 새해는 동의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뉴어리 필링(January feeling)’ 곧 ‘1월의 느낌’은 희망과 낙관의 또다른 용어처럼 쓰인다. 2022년의 나머지 11개월도 꼭 1월만 같아라. ‘필링’이 긍정적이면 이것이야말로 울먼이 노래한 ‘청춘’이 아니겠는가.

<편집고문>





마룬 벨스에서 만난 '눈사람' 소녀



김경
(간호대 69)

전 날밤 내린 하얀 눈이 황금빛 나뭇잎 위에 앉아 있다.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다는 마룬 벨스(Maroon Bells)로 가는 길이다.

길옆에 차를 세우고 백양나무(aspen) 아래로 갔다. 눈이 부셨다. 눈의 무게에 나뭇가지가 휘었다. 아침햇살에 녹아 눈송이가 사르르 떨어진다. 눈 때문에 눈이 부신 건지, 보석 같은 경치에 눈이 부신 건지 잘 모르겠다.

좀 더 들어가니 소나무 숲이다. 수 천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산 가득히 서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그리 넓지 않은 주차장이 있다. 6월에서 10월 초까지는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차를 공원입구에 세워 두고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내가 간 날은 10월 8일, 개인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날이었다.

요즘 같아서는 땅을 갈아 주차장 만드는 것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지만 수 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이 경치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눈에 덮인 두개의 자줏빛 산봉우리와 반짝이는 호수. 이 광경이 만들어지는 데 3억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한다.

바닷속 땅이 솟아올라 산을 만들었다. 3천 4백만 년 전 솟아오른 땅의 열기로

광물질이 녹아 이 신비한 색깔을 만들고 2백만 년 전, 빙하기에 얼음이 이 계곡을 꽉 채웠다가 흘러내리며 지금의 이 계곡을 만들었다. 그 후 비바람에 깎이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잠시 왔다 가는 우리가 망가트리면 안 되

터)이다. 서울시내에서 보이는 인왕산 만큼 가까워 보이는데 높이가 4천 미터가 넘는다.

호수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산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솔길은 눈이 녹고 자주빛 흙도 녹아 더 이상 걸어 가

광물질이 녹아 신비한 색깔을 만들고 'BTS' 모자 보곤 옛날 생각나 '울컥'



는 이유다.

종처럼 생긴 두 개의 봉우리가 500미터간격으로 있다. 하나는 14613 피트(4317 미터) 하나는 14019 피트(4273 미

가 힘들었다. 밟으면 쉽게 미끄러진다.

1965년 이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8명이나 추락사했다. 이 산은 화강암이나 대리석이 아니고 진흙이 굳어진 이

암(mudstone)이다. 바위지만 약하고 잘 부서진다. 그래서 '죽음의 종(deadly bell)'이라고도 부른다.

조그만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으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줍어 하는 옛된 소녀다.

소녀는 가고 작은 눈사람만 산을 바라보고 있다. 저 작은 눈사람이 녹는 데는 몇시간이나 걸릴까?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산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집에 와서 사진을 다시 보고서야 이 소녀가 쓰고 있는 모자에 방탄소년단의 약자인 BTS, 그리고 한문으로 방탄이라고 수 놓여있다는 걸 알았다.

40년 전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겨우 아는 척하는 사람이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물을 정도였다. 가끔 만나는 한국 전 참전 군인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처참했다.

1984년 LA 올림픽 폐막식에서 다음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울릴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불렀었다. 옆자리에 앉았던 샌타바라에서 왔다는 백인 할머니가 나를 껴안고 달래 주었다.

1986년 대륙을 횡단해서 노스 캐롤라이나로 가는 길에 테네시 주를 지나면 서부터 식당이던 마켓이던 사람들이 우리를 외계인 보듯 바라보았다.

지금은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온 덕분일 것이다.

나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시간동안 자연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작품을 100년도 살지 못하는 내가 잠시 바라보고 온 것이 아득한 꿈속의 일이었다. 것처럼 느껴진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44,777

종신이사 (\$3,000이상)

다이아몬드이사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라티늄이사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커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실버이사

남가주 - 김경숙(사대64)
남가주 - 김태형(의대57)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종신이사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용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정태(의대57)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뉴욕

故한창섭(문리57)
강중무(사대61)
고애자(음대57)
김광호(문리62)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옥(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미시간

정태(의대 57)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북가주

강재호(상대57)
민병곤(공대65)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전혜경(문리67)
한만섭(공대49)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시카고

남상용(공대5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레곤

김상순(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현(경영66)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7)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워싱턴주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라티늄 이사 \$50,000 이상

(G) 골드이사 \$10,000 이상

(S) 실버이사 \$5,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장동석(문66)	200
강신용(사73)	200	전낙관(사60)	75
구철희(의78)	125	전원일(의77)	75
권기상(대72)	100	정근희(의65)	10,000
김동석(음64)	200	정신(대92)	1,000
김병연(공68)	200	정재훈(공64)	260
김새담(법55)	25	최용완(공57)	100
김영(수63)	500	최종권(문59)	220
김영봉(사60)	200	한귀희(미68)	2,000
김영중(치66)	75	한홍택(공60)	200
김영희(간54)	50	뉴욕	
김은숙(미62)	1,000	강창홍(의63)	50
김은중(상59)	400	권영국(상60)	200
김중섭(문66)	100,000	금영천(약72)	1,000
노명호(공61)	6000	김명철(공60)	200
박우선(공57)	500	김완주(의54)	75
박원준(공53)	200	김은희(간78)	200
박은숙(미62)	200	김중권(의63)	200
박종수(수58)	12,000	리준무(음65)	200
박혜란(음72)	300	문석면(의52)	200
방석훈(농55)	300	박순영(법56)	75
성주경(상68)	200	선종철(의57)	100
송영두(공59)	200	이강홍(상60)	200
신영찬(의63)	200	이재덕(법60)	75
안혜정(생77)	200	이전구(농60)	500
오찬수(약57)	200	조남천(사59)	350
오홍조(치56)	50	차수만(약71)	300
이명선(상58)	500	최한용(농58)	1,500
이법식(공61)	375	한승순(간70)	150
이병준(상55)	3,000	허선행(의58)	200
이소희(의61)	75	홍종만(공64)	200
이장길(치63)	50	미시간	
이창신(법57)	500	김희주(의62)	250
		오동환(의65)	200
		이성길(의65)	100
		이재승(의55)	75

북가주		복가주	
한상봉(수67)	500	한상봉(수67)	500
샌디에고		워싱턴DC	
이휘영(법59)	75	강길중(약69)	200
시카고		고무환(법57)	200
김현주(문61)	100	권철수(의68)	200
소진문(치58)	200	김동훈(법56)	200
이영섭(수56)	75	김응환(치88)	200
이용락(공48)	1,000	남옥현(경84)	1,000
정의철()	250	박홍우(문61)	200
최희수(문67)	100	백순(법58)	200
한경진(상59)	200	석균범(문61)	200
오레곤		오인환(문63)	200
김상순(상67)	200	유영준(의70)	175
텍사스		이건형(수54)	25
이석호(농78)	200	이내원(사58)	75
진기주(상60)	500	이선구(문65)	275
황명규(공61)	200	이연주(치88)	200
플로리다		정평희(공71)	200
임필순(의54)	200	조화유(문61)	75
조경호(의66)	200	워싱턴	
필라델피아		민영기(공65)	75
이만택(의52)	200	캐나다 밴쿠버	
이승공(의63)	200	장희순(의73)	388
정태광(공74)	100	캐롤라이나	
하트랜드		한광수(의57)	500
고차봉희(의51)	500	코네티컷	
이상강(의70)	10,000	김기훈(상56)	200
		최창송(의52)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강희자(인72)	60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400	김원탁(공65)	240
김양희(음77)	1,200	김은중(상59)	600
김원탁(공65)	240	김자성(의79)	1,500
김은중(상59)	600	김정빈(공66)	500
김자성(의79)	1,500	나두섭(의66)	200
김정빈(공66)	5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나두섭(의66)	200	미주재단	3,0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민일기(약69)	500
미주재단	3,000	박수경(생84)	1,500
민일기(약69)	500	박재환(문75)	600
박수경(생84)	1,500	박재호(공58)	300
박재환(문75)	600	서동영(사60)	240
박재호(공58)	300	서치원(공69)	2,500
서동영(사60)	240	안혜정(생77)	200
서치원(공69)	2,500	이기준(법54)	500
안혜정(생77)	200	이범모(치74)	250
이기준(법54)	500	이원택(의65)	1,200
이범모(치74)	250	이종묘(간69)	240
이원택(의65)	1,200	임춘택(상68)	400
이종묘(간69)	240	정재훈(공64)	240
임춘택(상68)	400	주영세(사59)	400
정재훈(공64)	240	차민영(의76)	1,500
주영세(사59)	400	최용준(수81)	400
차민영(의76)	1,500	한효동(공58)	300
최용준(수81)	400	홍훈정(음70)	400
한효동(공58)	300	뉴욕	
홍훈정(음70)	400	김승호(공71)	1500
뉴욕		이전구(농60)	240
김승호(공71)	1500	워싱턴DC	
이전구(농60)	240	남옥현(경84)	1,500
워싱턴DC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300
박원준(공53)	300	한홍택(공60)	50,000
시카고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이용락(공48)	300
모교발전기금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홍선일(공71)	100	워싱턴DC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권철수(의68)	100	워싱턴주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이원섭(농77)	150	Brain Network	
Brain Network		시카고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이용락(공48)	200	지부부담금	
지부부담금		워싱턴DC	2000
워싱턴DC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_____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richardyoondm@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김자성 정신과

진료 분야

소아부터 노년 정신의학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부부 상담

타주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김 자 성(의대 79)

TEL 213.797.5953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명예회장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a.org |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o@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가주 SAN FRANCISCO
 김기덕(문리 74) gofkiduk200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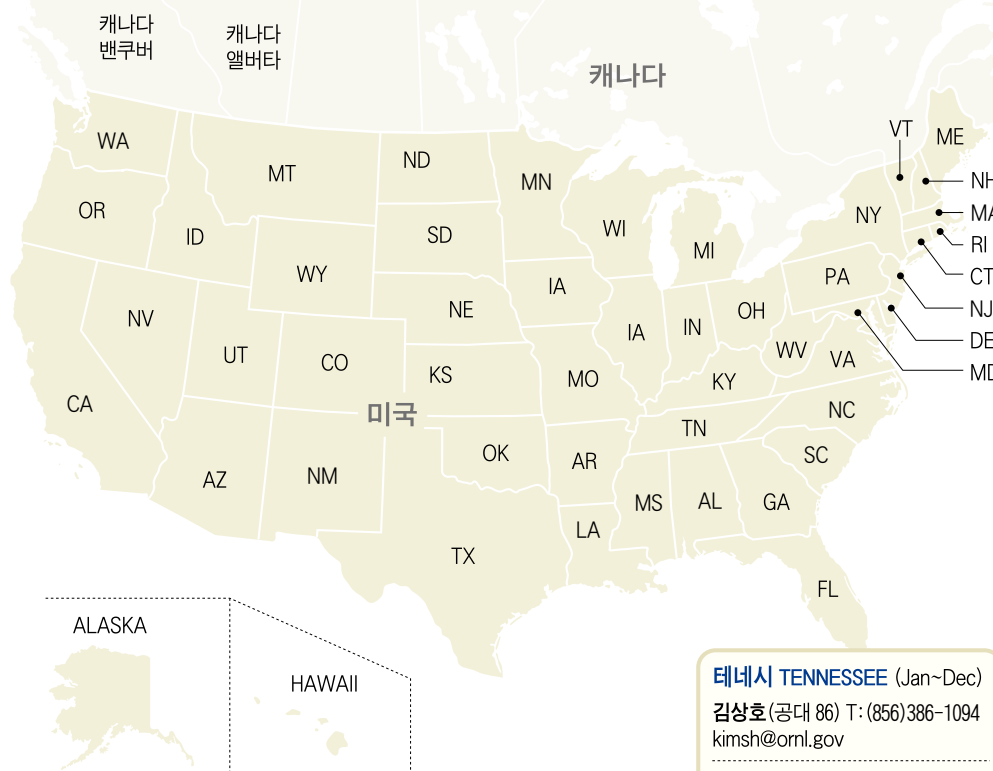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rimshake@hotmail.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윤하(공대 66) snuaachicago@gmail.com www.snuachicago.org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jaypkim@keiusa.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milee@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ae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차민영(의대76)

인생 후반 건강지킴이

야구에서는 구원투수!
메디케어 HMO는
서울 메디칼 그룹!

인생 후반, 시니어 분들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의료 혜택의 선두주자
서울 메디칼 그룹이 있어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건강도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건강 스트라이크 ~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8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8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Annandale Office **703-256-6002**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888-7456**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04-578-1426**